

KOLON

HAPPY COMMUNICATION MONTHLY MAGAZINE
2013 FEBRUARY Vol.508

성장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Best *Badge* Player!

1년 365일 매일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조금 식상하겠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패용할 성공퍼즐 배지도 활용법에 따라

스타일링을 도와 줄 재미있고 멋진 아이템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성공퍼즐 배지는 항상 일정한 위치에 달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옷, 모자, 가방, 머플러, 목걸이, 귀마개 등

어떤 패션이든 항상 부착할 수 있고 눈에 잘 보이는 위치라면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비비드오렌지 컬러가 스타일의 포인트가 돼 줄 것입니다.

2013 코오롱 성공퍼즐 배지와 함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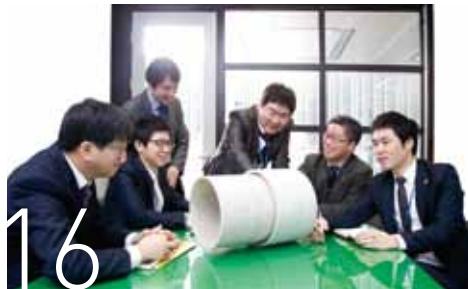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러스트 김소라

CONTENTS

HAPPY COMMUNICATION MONTHLY MAGAZINE
2013 FEBRUARY Vol.508



16



40



42

성공퍼즐 한 조각

- 04 씨앗을 뿌려라! 성공의 씨를 뿌리는 것은 '나'라는 농부
- 06 1만2,438명의 코오롱에게 물었다 나의 성공퍼즐에 심은 씨앗은?
- 08 KOLON in China 대륙에 차이나드림의 씨앗을 심다
- 10 Self Test 나의 성공 가능 자수 알아보기
- 12 기회를 잡는 트렌드 헌터가 돼라!

함께 만드는 퍼즐

- 14 Hot Place 코오롱제약 의약연구소
- 16 이 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코오롱인더스트리 복합소재사업팀
- 20 영광의 주인공 코오롱의 성공퍼즐을 만나다
- 24 달인을 찾아라 코오롱글로벌 철강팀 안정희 과장
- 26 꿈을 향한 디딤돌 ①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아이들과 함께한 놀이공원 방문기
- 28 꿈을 향한 디딤돌 ② 코오롱 사랑 나눔 현장
- 30 엄마아빠회사 팀구생활 코오롱인더스트리 임직원 자녀 초청 프로그램
- 32 우리 가족 미션 성공기 코리아이플랫폼 상품개발팀 유수영 과장 가족

세상 속 퍼즐 찾기

- 34 코오롱 카툰 미션 임파서블에 대처하는 직장인의 자세
- 36 스페이스K가 소개합니다 스페이스K 이재삼 개인전 개최
- 38 해빛 건강플러스 현대인을 위한 건강 필수품 영양제 Q&A
- 40 길 위의 맛 훈훈한 시골 외암 민속마을과 정겨운 밥상

Now in KOLON

- 42 M12기를 소개합니다!
- 48 2013년 M12기 신입입문교육 1부
- 50 그룹 블로그 & 페이스북 오픈
- 51 오운문화재단의 '살맛나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 52 시리즈, 커스텀멜로우, 래:코드, 슈콤마보니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 53 코오롱스포츠 2013 S/S 컬렉션
- 54 2013년 w-store 신년 세미나
- 56 각 사뉴스
- 62 열린 편집실

발행일 | 2013년 2월 15일(월간·비매품·통권 508호)

발행처 | (주)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담당 | 조현재 대리 (02-3677-3108)

편집 | 네오미디어(02-512-1666) 사진 | 스튜디오 ETO(02-3442-1907) 인쇄 | 보령ON(02-2274-4545)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만 성공의 씨를 뿌리는 것은 ‘나’라는 농부

알토란같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언제나 촉촉하고 신선한 물 뿌리기, 따사롭고 풍성한 햇볕 쬐기,

선들선들 부는 바람 쐬기, 향기와 영양, 에너지를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벌과 나비는 불러 모으고,

뿌리와 잎을 상하게 만드는 벌레는 미리미리 잡아야죠.

우리는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성공씨앗을 뿌려 노력과 실천의 흙으로 덮은 다음,

발로 밟고 손뼉 치며 세상과 미래를 내다보는 농부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대응하며 갖춰나가는 Need!

머리와 가슴에 꼭꼭 심고 가꿔나가는 Seed!

우리 안에 뿌리내린 성공씨앗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코오롱의 밝은 미래, 우리의 성공씨앗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성공퍼즐에 심은 씨앗은?

성공퍼즐 이벤트로 실시한 러키 넘버 퍼즐이 100% 참여를 달성했습니다.
러키 넘버를 부여받으면서 1만2,438명 코오롱인이 마음속에 심은 성공퍼즐
씨앗은 무엇일까요? 직원들의 희망 메시지 일부를 공개합니다. 정리 사보편집실

2013년의 성공 화살은 이미
표적을 향해 활시위를 떠났습
니다. 이제 코오롱 가족 모두
의 화살은 각각 성공이라는 표
적을 정확히 맞힐 것입니다.

양진부 차장(주)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판도라의 상자에도 희망이 있었다고 하니 그 희망을 모으면 성
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지냅시다!

최문선 과장(코오롱워터앤에너지 양산폐수처리건설공사)

모두가 희망
의 ‘별’이 되
어 희망에 전
염됩니다.
박철한 대리(코오롱워터앤에
너지 경산사업소)

회사의 더 큰 성
장과 거기에 밀
거름이 될 수 있
는 부서 전체의
성공!

김건우 주임(코오롱인더스트
리 FnC부문 Sports영업1팀)

교수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
자성어 제구포신(除舊布新). 옛
것 중에도 다시 돌아볼 것은 돌
아보고 새 것이라도 폐단은 미
리 막아내려 했다는 의미입니
다. 성공퍼즐의 ‘**12438-1=0**’의
뜻도 포함될 듯 하네요!

김상기 차장(코오롱제약 약사팀)

Team Work란?

T Together
E Everyone
A Achieve
M More
W ork = Synergy

모두 함께 조금씩 이뤄내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김상수 차장(마우나오션개발 마케팅팀영업1파트)

바닥에 잠시 가봤습니다. 불안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을 비웠습니다.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초심을 갖으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모두가 초심을 갖고 협력한다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신종암 차장(코오롱베니트 서비스개발팀)

우리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 종이로 만든 퍼즐을 선물했는데 그 퍼즐을 다 맞추고 박수치며 좋아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성공퍼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의 성공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달리고 달릴 것입니다.

원창용(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CM생산2팀생산U)

코오롱 퍼즐 모양을 보면 하나의 모양 중 일부는 다른 퍼즐에 포함되고, 또 일부는 다른 퍼즐의 일부를 받아들여 완성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가고, 포용하려 노력한다면 모두가 바라는 성공이 이뤄질 것입니다.

황창용 대리(코오롱환경서비스 통영환경센터)

2013년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즐겁도록 만들어야 하고, 즐겁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척 설렙니다.

조도연 대리(코오롱패션머티리얼 P사업팀)

지금의 기회 =
그때의 위기. 지
금의 위기 = 그
때의 기회!

양정열 주임(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부문
Sports영업3팀)

① 제2 도약의 원년! 2013년 CVC

경영방침의 전략적 실천을 통해 회사가 목표로 하는 2017년 매출 달성을 위한 제2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

② 가족, 동료 모두 건강한 한 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동료애를 하나로 모으고 R&R을 바탕으로 즐겁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김창규 수석연구원(코오롱플라스틱 연구1팀)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나의 성공, 우리의 성공을 위
해 꾸준히 나갑시다.

김현오 차장(코오롱생명과학 환경소재사업팀)

'코오롱'이라 쓰고 '가족'이라
읽는다. 가족 모두 즐겁게 일
하며 희망을 확인하는 한 해
가 되길 바랍니다.

인영남 부부장(코오롱베니트 SE팀)

대륙에 차이나 드림의 씨앗을 심다

중국 지주사를 비롯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6개 회사의 통합 사무실이 중국 상하이에 마련됐다. 중국 상하이 통합 사무실 스마트
오피스는 중국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으로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 대륙에서 큰 성공을 꿈꾸는
코오롱의 스마트한 현장을 찾아가봤다. (정리 민수연((주)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주임)



Info



주소 中国上海市上海长宁区中山西路1065号SOHO中山广场,

중국 상하이시 상하이장닝구 중산서로 1065호 SOHO 중산광장

연락처 021-60318181

공동 사무실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장소를 안내해준다.

교통여건 흥차우공항 30분, 푸동공항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A 동방명주탑

B 인민광장(시청)

C 흥천루(교민생활권)

D 舊FnC, KNC사무실

Mr. K 미션 성공!

드디어 바이어가 도착했다. 상하이 통합 오피스에서 중국의 고급 정보와
서투른 중국어 실력을 커버해주는 통역 서비스까지… 바이어들도
원활한 의사소통과 막힘없는 Mr. K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두근두근!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Mr. K는 원단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설비에 제품을 걸어두고 설명을 곁들였다. 바이어도 귀에 쭉쭉
들어오는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미팅 후 따로 담소를 나누기 위해
임원들과 바이어를 준비된 VIP룸으로 안내했다. 탁 트인 스카이뷰로
이제는 그들의 눈까지 즐겁게 하리라!

호텔 렌털 서비스로 완벽 마무리!

'거래성사' 네 글자가 손에 잡힐 듯 완벽에
가까워지는 순간. 바이어들이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난처해지려 할
때 스마트 오피스에서 호텔 렌털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로써
바이어들의 환한 웃음과 멋진 곳에서 업무
얘기를 할 수 있어 즐거웠던 말로 원활한
거래가 성사됐다. 그렇게 '룰루랄라' 즐거운
발걸음으로 Mr. K는 한국에 돌아왔다.



“

중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스마트 오피스가 한몫했다.
컴퓨터 하나만 들고도 모든 업무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이곳! 바로 중국의
상하이 통합 스마트 오피스다!

”



출발! Mr.K의 스마트 비즈니스

출장을 가서 중요한 바이어와 미팅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다? 타국에서 땀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찾아 헤매려니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다. 이제 그런 고민은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 생겼다. 중국 통합 오피스 안에 스마트 오피스가 구축된 것. 모든 코오롱인이 중국에서도 성공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것이다. 비즈니스 공간뿐만 아니라 원활한 미팅을 위한 서비스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Mr. K와 함께 상하이 통합 사무실에서 거래를 성사시켜보자!



Welcome to 상하이!

Mr. K는 오늘 대형 거래를 위해 중국 공항에 도착했다. 하겁지겁 짐챙기며 택시를 잡아타는 일반 비즈니스맨과는 달리 그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준비된 차에 올랐다. 특별한 미팅이라 스마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공항 픽업 서비스 지원을 받아 상하이 통합 사무실에 여유롭게 도착했다.



두근두근! 발표 5분 전

중국이라는 낯선 곳이지만 코오롱 통합 사무소에서 편안하게 업무할 수 있어 성공의 열쇠를 쥐기에 충분했다.

기분 좋은 거래 성공 예감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미팅 자료를 프린트하고 회의실로 들어가 발표를 준비했다. 빔프로젝트까지 설치돼 있어 화면을 통해 준비한 자료를 체크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 Mr. K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면 충분하다.



성공 가능 지수 알아보기

나는 얼마나 많은 성공 씨앗을 가지고 있을까?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제치고 '설득력 지수(Persuasion IQ, PQ)'가 성공 잠재력의 새로운 결정 요인으로 떠올랐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 성공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것이다. 성공 잠재력을 체크해보는 셀프 테스트를 통해 잠재력을 심어 초능력을 거두는 법을 알아보자. 구성 권정미 / 테스트 출처 Persuasion IQ(www.persuasioniq.com)

* 각 문항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고르세요.

Q1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대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 a 절약되는 금액을 알려준다
- b 가장 비싼 제품부터 소개한다
- c 평균 가격의 제품부터 소개한다
- d 제품의 장점을 소개한다

Q2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a 두려움
- b 탐욕
- c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 d 자존심

Q3 친구에게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동행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때,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 a 이것이 너의 삶을 바꿔줄 거야
- b 나를 한번 도와주지 않을래?
- c 일단 가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야
- d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이 지겹지 않니?

Q4 의사 결정을 할 때 잠재의식이 미치는 정도는 몇 퍼센트인가?

- a 65%
- b 75%
- c 85%
- d 95%

Q5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 a 논리
- b 감정
- c 기능
- d 혜택

Q6 고객과의 거래에서 설득력이 약해지는 요인은?

- a 결핍
- b 보상
- c 두려움
- d 잡담

Q7 _____한 사람이 설득을 더 잘한다.

- a 교육받은
- b 내향적인
- c 분석적인
- d 외향적인

Q8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때 해야 하는 행동은?

- a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다
- b 취미나 관심사를 이야기한다
- c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d 관련성을 찾을 때까지 잡담한다

Q9 설득할 때 당신의 최종 목표는?

- a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 b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돋는 것
- c 관계를 이어가고 신뢰를 쌓는 것
- d 상대방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아는 것

Q10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a 약속에 늦는 것
- b 불필요한 잡담
- c 관련 정보를 주지 않는 것
- d 생각보다 오래 머무는 것

Q11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전할 때 하는 행동은?

- a 더 크게 말한다
- b 더 작게 말한다
- c 더 천천히 말한다
- d 더 빠르게 말한다

Q12 당신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 a 마감일정
- b 제한된 공간
- c 정보의 제한
- d 손해 가능성

Q13 잠재 고객을 사로잡는 가장 설득적인 방법은?

- a 모두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b 사용하지 않을 때 생겨날 일을 설명한다
- c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설명한다
- d 가족과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설명한다

Q14 설득력이 강한 말의 속도는?

- a** 평균 속도
- b** 보통보다 느리게
- c** 보통보다 빠르게
- d**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서

Q15 너무 식상해서 설득력이 약한 설명 방법은?

- a** 공통점 찾기
- b** 거래를 급하게 마무리하기
- c** 긴장감 유발하기
- d** 유머

Q16 고객이 가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때 해야 할 일은?

- a** 보증에 대해 이야기한다
- b** 가장 비싼 제품을 보여준다
- c** 추가 혜택을 보여준다
- d** 추가 기능을 보여준다

Q17 고객이 설득 과정에서 불안해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a**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 b** 심한 구매 강요를 받을 때
- c**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 d** 신뢰감을 주지 못할 때

Q18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 할까?

- a** 더 많이 구매한다
- b**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본다
- c** 더 좋은 평가를 한다
- d** 위의 보기 모두

Q19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 a** 갑자기 가야 한다는 말을 할 때
- b** 사선을 피하기 시작할 때
- c** 또 다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때
- d** 제시한 서비스나 제품이 너무 비싸다고 할 때

Q20 협상할 때 기대치보다 높은 숫자를 제시한다면 그 숫자는 _____ 해야 한다.

- a** 정당한 수치여야 한다
- b** 최초의 제안이어야 한다
- c** 압도적이어야 한다
- d** 마지막 제안이어야 한다

정답

1b 2c 3a 4d 5b 6c 7b 8c 9b 10b 11c 12c 13b 14c 15c 16b 17c 18d 19b 20a

점수 설득력 지수

- | | |
|-------|--|
| 1~4 | ♣ 잘못된 업무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
| 5~8 | ♦♦ 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불안함을 떨치고 다시 도전하세요. |
| 9~12 | ♣♣♣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군요. 적극적인 자기 계발로 잠재력을 키워보세요. |
| 13~16 | ♣♣♣♣ 지금도 훌륭합니다.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세요. |
| 17~20 | ♣♣♣♣♣ 당신은 설득의 달인! 성공 잠재력을 키우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

잠재력을 키우는 To Do List**1** 부정적인 생각을 디톡스하라

일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질해낼 수 있을까 되묻는 의심,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주변의 이야기는 잠재력 씨앗을 밟는 방해 요소다. 성공 잠재력을 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無)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잠재력은 자신의 가능성과 위대함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라

동기를 명확히 하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다. 일을 하는 원천이 자기 자신이나 외부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동기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스스로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성공 에너지를 퍼뜨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

3 '열심히'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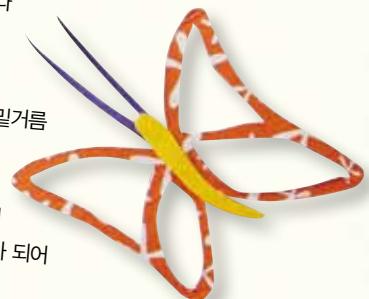
일을 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 번 점검해보자. 노력으로 성과를 대신하려는 태도는 자신감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팀 혹은 회사에도 엄청난 손실을 미친다. 잠재력을 발휘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4 될 때까지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와 장애물은 다음의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밑거름이다. 한 번 성공하면 다음 단계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힘을 넘기처럼 잠재력은 한계를 극복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면 죽기 살기로 도전해보자. 한계를 뛰어넘은 경험은 또 하나의 성공 포트폴리오가 되어 다음에 맡을 일을 대비한 자신감과 성취도를 높인다.

5 자기 계발에 힘써라

잠재력은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힘이 아니다. 틈틈이 도끼를 갈아놓은 나무꾼이 더 큰 나무를 벨 수 있듯이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해온 사람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공은 순간적인 결과가 아니라 습관과 과정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이다.



현터가 돼라!

업무 역량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종 미디어, 웹사이트, 잡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자신만의 통찰력(Insight)을 더할 때 비로소 구체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평소 최신 트렌드를 주의깊게 보면 세상의 니드(Need)를 파악해두면 이미 성공씨앗은 뿌려진 것이다. 글 김진경

패션 / 21세기 마케팅 런웨이의
가장 화려한 주인공

일반인도 함께 즐기는 국내 최대 패션 축제 '서울 패션위크'



매년 4월, 10월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패션 축제로 봄 가을 시즌 트렌드를 한 발 앞서 접할 수 있다. 파리, 뉴욕, 밀라노 등 해외 컬렉션은 취재진, 바이어, VIP 초청에 국한된 반면, 서울패션위크는 일부 쇼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Yes24, 티켓링크와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유통 / 수치화된 대중의 기호 속
유기적 상관관계를 읽는다

경제와 유통시장의 지표 사이트 'Retail DB'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산업 정보 사이트. 경영 정보, 통계 자료, 정책 자료 등 각종 연구 자료부터 매출 동향, 소비자물가 동향 등 피부에 와 닿는 동향 자료까지 국내외 경제와 유통시장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유통산업동향>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www.retaildb.or.kr

패션니스타들의 즐겨 찾기 1호 '스타일닷컴'



보그, 지큐, W 등 패션 전문지의 콘텐츠와 미국 최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Nieman Marcus)를 연계해 소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세계 최대 온라인 패션 사이트. 최신 유명 컬렉션의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타일닷컴 코리아도 참고할 만 하다.

www.style.com

실무와 현장의 유통 트렌드 매거진 <월간 리테일>



1975년 창간한 국내 최초의 유통 전문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우리 주변의 유통 트렌드와 전략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알아야 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등 실무와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는 기사의 일부만 볼 수 있으며, 전문을 보려면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www.retailing.co.kr





IT / 첨단으로 만나는 테크놀로지와 라이프스타일

세계 최고의 IT 이슈 매거진 <와이어드>



테크놀로지,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등 우리 사회의 기술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 최고 권위의 IT 매거진. 기술의 발전 및 변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고민과 사유를 축발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프라인 잡지와 함께 온라인 사이트, 태블릿 PC에서도 최신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어 편리하다. www.wired.com

디자인 / 새로운 흐름을 읽으며 창의와 아이디어를 찾는다

트렌드가 한눈에 '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페어'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동시대 디자인의 흐름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까지 볼 수 있는 디자인 축제는 트렌드를 체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울디자인페어, 디자인&아트페어 등 관심이 가는 행사의 일정은 미리미리 확인해두자.

신기술 종합 핫뉴스 사이트 '실리콘 앤리 인사이더' '테크밈'



트렌드에서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IT 전문 매체 '실리콘 앤리 인사이더'와 '테크밈'은 기술 관련 뉴스만 모아서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 두 사이트만 둘러봐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실리콘 앤리 인사이더 www.businessinsider.com
테크밈 www.techmeme.com

국내 최고(古) · 최고(高) 디자인 전문 매거진 <월간 디자인>



1976년 창간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 디자인 전문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디자이너 작품과 철학, 주목받는 디자인 프로젝트, 시각 문화를 다채롭게 하는 담론과 비평 등 풍성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정기구독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디지털 라이브러리 이용도 가능하다.

mdesign.design.co.kr

전문가 블로그 '서명덕 기자의 인터넷세상' '하이컨셉&하이터치'



트렌드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리하다. IT 전문 명덕 기자의 블로그나 미래 칼럼니스트 정지훈의 블로그 등 전문가의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얻는 힌트는 값지고 유용한 동시에 공짜다.

서명덕 기자의 인터넷세상 itviewpoint.com/blog
하이컨셉&하이터치 health20.kr

디자이너 관점에 맞춘 대표 디자인 포털 사이트 '디자인 정글'



전문적 디자인 정보와 업계 동향, 뉴스에서부터 각종 커뮤니티까지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디자인 포털 사이트. 특히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웹사이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SITE 갤러리'는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jungle.co.kr



Our Team



코오롱제약 의약연구소는…

신제품 제제 연구·분석, 제형 개발 등 더 안전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화학·고분자·제제학·약학 등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대형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형 연구에 힘쓰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며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모든 팀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reative
Inno

안전하고 혁신적인 의약품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눈금을 읽는 정확한 눈, 시약을 섞는 섬세한 손,
의약연구소 팀원들은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멋진 하얀 가운, 얼굴에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네요.
일본 수출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가는 요즘,
때때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또 다른 도약의 발판입니다.
실험실이 비좁은 창의적인 생각과 분야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소통!
모두의 꿈과 열정이 하나로 모인 여기는 코오롱제약의 열린 연구소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복합소재사업팀

토목 · 환경 · 물 분야의 복합소재 Global Leader를 꿈꾸다

KOLON Water Business의 소재부문 중심축을 담당하며 아심차게 복합소재*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다. 지난해부터 눈부신 도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복합소재사업팀이다. 토목 · 환경 · 물 분야의 복합소재 Global Leader로서 그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열정으로 서로를 태우기로 약속했다는 복합소재사업팀. 이들의 성공 노하우는
바로 사업의 성취를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글 성은경 / 사진 윤용식

*복합소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기존 단일소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소재를 말하며 당사가
생산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 관(Glassfiber Reinforced
Pipe) 및 맨홀은 유리섬유와 모래를 내부식성과 내마모성
이 뛰어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혼합하여 강도와
내압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우리가 살아야 KOA(KOLON ACE PIPE)가 산다

‘우리가 살아야 KOA가 산다’는 구호를 외치며 열정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복합소재사업팀이 2012년 드디어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속속 실현하고 있다. 신규 사업이라는 핸디캡으로 때론 회사의 천덕꾸러기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복합소재사업팀은 2012년 단기간 내에 급진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당당히 2013년을 맞이했다.

2008년 8월에 시작된 복합소재사업팀은 GRP 상하수도·직관과 맨홀의 생산·판매를 통해 코오롱그룹 전 회사 차원의 ‘Total Water Solution’ 소재부문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파이프의 단점을 보강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 복원성, 내부식성을 극대화한 복합소재사업팀의 사업 아이템인 G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는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복합소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재다. 아직은 국내시장 규모가 1조 원대지만 정부의 토목·환경·물 관련 사업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둘 ‘KOA사업의 지속적 성장과 이익 창출을 통해 그룹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KOA팀의 숙원이자 비전이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복합소재사업팀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단순히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 마케팅 수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사업의 리더인 김무원 부장, 조호근 부장과 팀원들은 전투적인 영업을 통해 그동안 각급 정부기관, 자자체, 각종 공사, 설계사, 시공사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지난해 국내 하수도 시장 완전 정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단계인 상수도 시장 진입을 위해 애심차게 또한 단계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상수도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시장 확대는 물론 해외 토목·환경 시장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내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KOLON Water Business를 통한 전사 시너지 효과 창출

복합소재사업팀이 참여하고 있는 KOLON Water Business는 비단 복합소재팀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다. 각 계열사의 독립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Total Water Solution’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기획, 시공, 운영, 소재·시스템 부분을 담당하는 계열사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환경서비스,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코오롱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계열사 간 통합된 토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Biz Synergy 창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유기적 연관성에 바탕을 둔 KOA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한 부서, 한 계열사 내 성공을 넘어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복합소재사업팀 구성원들은 한 시도 성공으로 향한 열정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신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상하수도관의 대표 리더가 되기 위하여

복합소재사업팀은 지난해 안정적으로 국내 하수도 시장에 정착했다. 하지만 상수도 시장 진입을 위해선 농업용수·재이용수 시장의 성공적 진입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재이용수 시장은 음용 가능성은 제외하고 상수도 시장과 시공 및 운영 조건이 동일해 사전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상하수도관의 대표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중대형 압송관



열린 소통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는 복합소재사업팀

현장 적용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일의 성공을 위해 먼저 생산·설비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배합 기술 및 생산 공정 안정화를 진행하면서 설계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주요 발주처에 대한 설계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GRP 유명 제조사와 기술, 사업 공조 또한 추진 중이다.

복합소재사업팀이 중대형 압송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2013년 상수압송관 시장에 진출한다면 상하수도 시장을 넘어 토목, 환경 및 물 사업 전반에 걸쳐 KOA사업의 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발전소, 선박과 해양 플랜트, 송유, 가스관 등에 도전하고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사업 분야에도 진출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그룹 내부의 시너지 효과 발생, 사업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월드 클래스 품질과 생산 기술 구현을 통한 고객 만족, 555프로젝트(매출 500억, GRP M/S 50%, 영업이익 5%) 달성을 통해 토목·환경·물 분야의 복합소재 Global Leader로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복합소재사업팀의 김무원 부장은 “사업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경험과 자질, 열정이 충만한 팀원들이 함께하기에 우리들의 꿈이 곧 객관적 현실로 꽂피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믿고 있다. 지금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간다면 성장세는 분명 상승 곡선을 타리라 기대하는 복합소재사업팀. 이 팀의 전투적인 열정과 성공은 분명히 코오롱인터스트리 내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할 것이다. ☐



Mini Interview



▼ 조호근 부장



▲ 김무원 부장

사업 성공을 향한
사기와 열망이 가득합니다

김무원 부장, 조호근 부장

복합소재사업팀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요?

KOA사업은 2008년 미래 투자의 일환으로 토목·환경·물 사업의 한 분야로 출발했습니다. 코오롱의 소재사업 기반에 토목·환경·물 관련 대외 인프라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KOA사업팀은 독자적 성공은 물론 그룹 전체의 성공에 이바지할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1차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합소재사업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토목·환경·물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고, 지속 성장 가능한 시장이 있으며 이미 복합소재사업팀은 신규 수요를 창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내 관련 회사 및 사업 분야들이 Cross Function을 통한 유기적 결합을 시작해 그룹 내 연관 산업의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췄으며 사업 성공에 대한 사기와 열망이 충만합니다.

복합소재사업팀의 성공 키워드를 '열정'으로 선정한 이유는?

팀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업의 성공을 길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성공 키워드가 있겠지만 저희 팀에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열정으로 서로를 태워주기로 약속했기에 '열정'을 성공 키워드로 선택했습니다.

Key To Success!

복합소재사업팀이 말하는 성공 키워드 'Passion'

열정이란 공정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뿜어줄 수 있는 기운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심취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를 공유해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정성준 과장

열정은 나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웃게하게 하는 동력이며 성공을 위한 필수 에너지입니다.

서원담 과장

열정은 각자 맡은 소임을 소리 없이 강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김우란 사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희 팀은 대내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팀이라 는 시선을 받아왔지만 팀원 모두 열정을 풀었기에 초단기적으로 성장, 바빠도 빠른 목표 달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철웅 과장

헬렌 커닝엄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열정은 닫힌 문이 아니라 서로 열린 다른 문을 향해 항상 둘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차장

열정이란 다른 의미로 혼(魂)이라는 한자어가 생각납니다. 혼은 소명의식, 목적의식, 비전, 신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혼을 다하는 열정,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충렬 대리

열정이란 공정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뿜어줄 수 있는 기운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심취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를 공유해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정성준 과장

열정은 나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웃게하게 하는 동력이며 성공을 위한 필수 에너지입니다.

서원담 과장

열정은 각자 맡은 소임을 소리 없이 강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김우란 사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희 팀은 대내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팀이라 는 시선을 받아왔지만 팀원 모두 열정을 풀었기에 초단기적으로 성장, 바빠도 빠른 목표 달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철웅 과장

헬렌 커닝엄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열정은 닫힌 문이 아니라 서로 열린 다른 문을 향해 항상 둘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차장

열정이란 다른 의미로 혼(魂)이라는 한자어가 생각납니다. 혼은 소명의식, 목적의식, 비전, 신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혼을 다하는 열정,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충렬 대리



그룹 최우수사원, 우수사원 인터뷰

코오롱의 성공퍼즐을 만나다



우리의 1등은 성공을 위한 도약이 될 것

코오롱글로벌 영업1팀 강승철 부장

강승철 부장은 코오롱모터스가 1988년 BMW를 직접 수입해 판매를 시작한 이래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코오롱모터스의 산증인이다. 그는 여러 어려운 순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다.

IMF 시절 수입차 업계에 종사한다는 것만으로도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2005년에는 영업노조를 결성한 직원들을 설득하느라 며칠씩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을 때는 실적 개선을 하지 못하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여러 난제와 싸워왔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조직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기보다 후임자의 앞길을 열어주기에 힘썼다. 그 결과 우수 영업사원과 핵심 인재들이 직급을 뛰어넘어 지점장으로 빌터됐다. 2012년부터는 수첩에 빼곡히 코칭 일지를 작성해 조직 관리, 고객 관리, 인적 네트워킹 요령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전수했다. 이처럼 노력한 결과 전국 지점과 세일즈 컨설턴트를 하나로 만들었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매출액 신기록은 물론 경쟁사 대비 1인당 판매 대수 최고 효율 및 최저 이직률을 달성했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뛰어 실적 개선을 이뤄낸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Next-me'를 외치며 달려온 그에게 'Next Step'에 대해 물었다.

“지금까지 이뤄온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업계 1등이라는 타이틀이 ‘생존을 위한 노력’이었다면 앞으로 1등은 ‘성공을 위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모든 KPI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어떠한 리스크에도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며 고객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코오롱모터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향후에는 BMW 판매나 A/S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인 중고차 판매 사업을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 연관 사업(렌터카, 보험, 파이낸스, 부품, 폐차 사업) 등 신규 BIZ를 개척하여 코오롱모터스를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토클 자동차 전문회사로 발전시키고 싶네요.”

조각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조각은 여기에 딱 들어맞겠다’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주변에 어울릴 만한 조각들을 찾으면 조금씩 그 모양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그룹이 2년마다 선정하는 최우수사원과 우수사원도 그런 존재다. 코오롱의 성공을 이루는 1만2,438조각 중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노력해 지금의 자리에 딱 들어맞게 된 것이다. 올해는 최우수사원 1명, 우수사원 3명 등 총 4명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 그들이 극복한 역경과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다. 글 민수연((주)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주임) / 사진 윤용식, 이문규



열정과 디테일로 빛어낸 勝可爲也(승가위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정책총괄팀 염경수 부장

염경수 부장은 우리 그룹이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해 2007년 인수한 환경 시설관리공사를 지금의 코오롱워터앤에너지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는 M&A 이후 기존 조직문화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움츠러들기 쉬운 분위기를 뛰어는 한편 코오롱 문화의 장점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녹여내 수시포상, 칭찬문화, 전산시스템, 조직평가, 이미지 등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차별화된 문화 포인트를 창출했다. 뿐만 아니라 운영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리스크에 대해 법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응하여 ‘勝可爲也(승가위야, 손자병법 허실편 ‘승리(勝利)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뜻)’ 성공스토리를 써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회사가 매출액 86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거두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그동안 기획팀과 재무팀을 책임지는 팀장인 동시에 법무 업무도 맡고 있는 염경수 부장에게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그 마저 업무의 경중에 따른 효율적인 시간 분배와 토요일 근무를 마다 않는 열의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디테일’이었으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비록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는 것 못지않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기본으로 여기에 디테일이 더해지는 조직문화가 널리 퍼져 우리 코오롱 직원들이 ‘勝可爲也’의 경험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커스텀멜로우디자인실 손형오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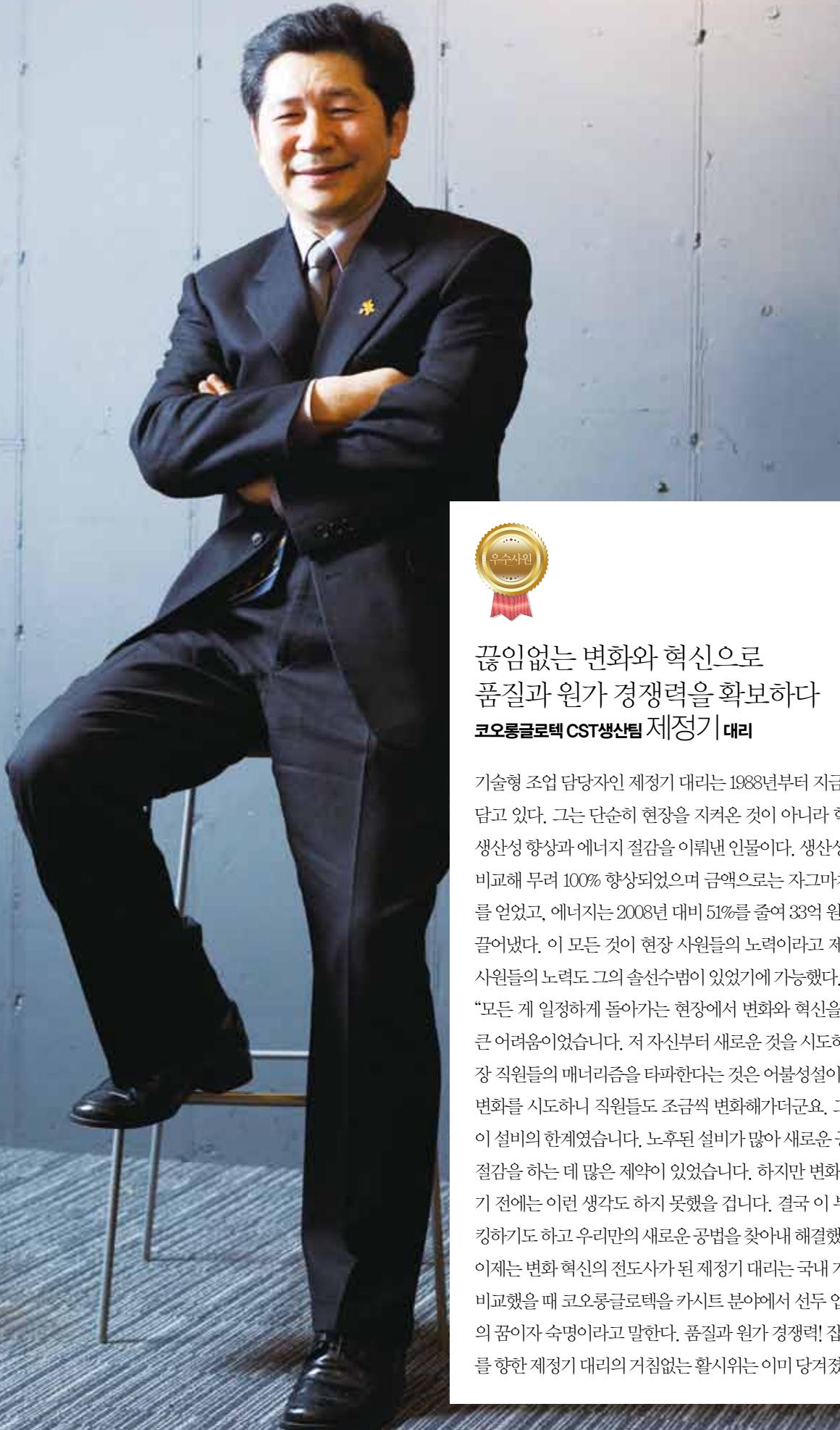
손형오 과장은 독창적인 콘셉트로 사랑받는 남성복 브랜드 커스텀멜로우를 만든 디자이너다. 커스텀멜로우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이 새로운 브랜드에 목말라 있을 때 손형오 실장을 만나 2009년 8월에 탄생시킨 브랜드다. 커스텀멜로우가 추구하는 콘셉트는 클래식하고 포멀한 남성복이다. 브랜드 론칭 당시 우리나라 남성복은 화려하고 은색 위주의 양복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는 클래식이 다시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었다. 패션 동향에 민감했던 손형오 과장으로선 클래식을 기반으로 짚고 재해석된 남성복을 우리나라에 선보이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커스텀멜로우는 론칭부터 이미 동종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였고, 3년 6개월 만에 손의 전환을 실현하며 2012년 11억 원이라는 이익을 창출했다. 커스텀멜로우가 3년여 만에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디자인이든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소비자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죠. 트렌드를 반영하지만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는 살려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 이 커스텀멜로우의 콘셉트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디자인실은 평소 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시도합니다. 일례로 아이템 중 블레이저에 끈 디테일을 추가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그것은 사실 보이스카우트의 매듭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였죠.”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제품이 카드 홀더다. 다양한 매듭이 돋보이는 커스텀멜로우의 카드 홀더는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6개월마다 새로운 시즌의 컬렉션을 준비해야 하는 팀원들에게는 제한된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내년에 여성복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손형오 과장은 2013년에 490억 원, 2016년에는 1,000억 원대까지 매출을 올려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그는 커스텀멜로우가 글로벌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갖춰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감성까지 전달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길 꿈꾸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다
코오롱글로텍 CST생산팀 제정기 | 대리

기술형 조업 담당자인 제정기 대리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현장에 몸 담고 있다. 그는 단순히 현장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현장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이뤄낸 인물이다. 생산성 부분에서는 2009년과 비교해 무려 100% 향상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자그마치 42억 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고, 에너지는 2008년 대비 51%를 줄여 3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다. 이 모든 것이 현장 사원들의 노력이라고 제정기 대리는 말하지만, 사원들의 노력도 그의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으니 현장 직원들의 매너리즘을 타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죠. 그런데 제가 먼저 변화를 시도하니 직원들도 조금씩 변화해가더군요. 그다음으로 어려웠던 점이 설비의 한계였습니다. 노후된 설비가 많아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거나 원가 절감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을 외부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공법을 찾아내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변화 혁신의 전도사가 된 제정기 대리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코오롱글로텍을 카시트 분야에서 선두 업체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꿈이자 숙명이라고 말한다. 품질과 원가 경쟁력!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향한 제정기 대리의 거침없는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다. ☺



두 번째 주인공,
코오롱글로벌 철강팀 안정희 과장
철의 여인,

영업의 달인으로 거듭나는 중

주변에서는 그녀를 ‘불도저’라고 부른다. 때로는
우직함으로, 때로는 감성으로 고객을 만나는 안정희 과장.
가슴 뛰는 열정과 신념이 있어 ‘달인’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그녀를 만났다. 글 박샛별 / 사진 윤용식

회사에서 달인은 치열하면서도 여유롭고,
체계적이지만 부드럽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달인 Profile

입사연도 2011년
전공 노어노문학과
가족관계 남편, 아들(5세, 7세)
취미 가족과 시간 보내기
좌우명 뻔하게 살지 말고, Fun하게 살자!

철강업의 제일선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끄는 영업 파트. 각기 맡은 사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코오롱 철강 영업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다. 바로 아담한 체구와 여린 목소리의 소유자, 안정희 과장이다.

“안녕하세요, 철강1팀 안정희 과장입니다.”

그녀의 인사에서 반가움이 듬뿍 묻어난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철강 영업 역시 사람을 만나 물건을 파는 일이다. 제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등 영업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 진심을 더해야 한다. 영업도 결국엔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철학이다.

① '철강'이라는 단어의 차가운 느낌을 그녀는 따뜻한 감성으로 메운다. 실적과 거래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계량할 수 없는 '마음'이다. 고객의 말을 꼼꼼히 기억해뒀다가 뜻밖의 순간에 선물을 쟁기거나 인사를 건네는 것. '사람에 대한 관심'은 영업을 하는 그녀에게 가장 큰 무기다.

②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일로 품다. 휴가 뒤 전보다 능률이 오르지 않고 우울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업무에는 과정의 입박과 성과에 따른 보람이 공존하는 법. 어렵기만 한 미션을 차근차근 달성해갈 때의 성취감, 혹은 A프로젝트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B프로젝트의 성취감으로 보완하며 열정을 지속시킨다.

③ 사람들은 흔히 영업이 개인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업은 철저히 팀워크로 이뤄진다. Seed를 찾고 실마리를 주는 것은 개인이지만, 협의와 계획을 통해 발전시키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끄는 것은 팀의 역할이다. 나의 실적은 30%라는 겸손함으로 팀이 있어야 성과도 있다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자.



일정을 체크하고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모두 성과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감과 열정, 팀워크라는 퍼즐을 완성시킨다

외국 기업의 비서로 일했던 안정희 과장은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사의 말을 통역하며 자연스럽게 영업을 몸에 익혔다.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그녀에게 영업은 꼭 맞는 옷이었다. 진로를 바꿔 코오롱글로벌에 입사하며 그녀는 ‘영업의 달인’으로 거듭났다. 길지 않은 시간에 입지를 굳혔으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안정희 과장은 공로를 팀에게 돌린다. 한때 이란 철강 시장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는 삼국간무역(Cross Trade)이 금지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안정희 과장은 현대제철과 신규 판매선을 연결하며 불가능이라 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 뒤엔 그녀의 판단과 추진력을 믿어준 팀이 있었다. 그녀가 영업인의 필수 마인드로 꼽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팀워크가 만나면 하나의 성공퍼즐이 완성된다.

성별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는 안정희 과장. 그녀는 오늘도 철강 영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아이들과 함께한 놀이공원 방문기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하루!

1월 25일, 코오롱사회봉사단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아이들과 놀이공원 체험에 나섰다. 많은 인파에 아이들을 놓칠세라 긴장을 늦출 수 없던 하루였지만, 신나는 놀이기구와 멋진 광경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봉사단의 마음까지 밝아졌다. 글 양경진(주)코오롱 윤리경영실 주임 / 사진 이문규





01 봉사자들은 아이들의 점심식사를 도왔다
02 아이들은 통화 속 나라에 온 듯 온갖 놀이 기구를 신기하게 둘러봤다.

1월 25일,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그동안 시간적, 거리적 제약으로 가보지 못했던 잠실 롯데월드에 다녀왔다.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놀이공원 안은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했지만 봉사단은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아이들을 지켜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출발부터 복귀까지 낮선 사람들과 부대끼며 체험하는 오늘의 미션, 평소 사람이 많은 곳을 접해볼 기회가 적은 장애 아동들에게 약간 힘들었던 걸까.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밀려드는 인파에 몇몇 아이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잠시, 꼭 잡은 손으로 전해지는 봉사자들의 체온에 안정을 되찾고 주위의 볼거리에 빠져들었다. 일일 멘토 역할을 맡은 봉사자들 역시 신기한 풍경에 잠시 긴장이 풀렸다가도, 곧 아이들의 발걸음을 놓칠세라 시선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모두 다함께 순수한 동심 속으로

실내 놀이공원이라고는 해도 규모가 제법 커 보고 싶은 것도, 타고 싶은 것도 한가득이었지만 그만큼 사람도 많고 길도 복잡했다. 짜증날 법한데도 아이들의 얼굴엔 한가득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번엔 저기를 가볼까’ ‘다음엔 저것을 타볼까’ 놀이공원 안의 온갖 놀이기구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맞이한 식사시간. 워낙 인파가 붐비는 곳이라 식당에서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았지만 이 시간에도 아이들의 사회학습은 멈추지 않는다. 직접 가져온 돈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하고 식사를 마친 식기를 치우기도 했다. 남들보다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남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이 참 대견했다.

휴식 겸 식사시간이 끝난 뒤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라도 더 타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모습이 또래 어느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좀 전에는 겁이 나서 못 타겠다던 높이 올라가는 놀이기구에 도전하더니 타고난 후에는 연신 즐거운 웃음을 터트렸다.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됐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지하철을 타려 이동했다. 과천에 도착하자 개찰구 근처에서 어머니들이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꼭 붙어 있던 봉사단과 정이 들었을 법도 하건만,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안기며 오늘 하루를 자랑하기 바빴다.

“집에 돌아갈 무렵이면 아이들이 열었던 맘을 닫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봉사자들과의 만남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봉사자와 아이들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봉사자들의 섭섭한 마음이 얼굴에 드리워진지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벌써 여러 차례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료 주위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맴돌고 있었다. 복지관으로 돌아와 총평을 하는 시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출발할 때의 불안감은 어느덧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만 가득하다. 아이들은 솔직하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내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감돈다. 가끔은 마음속 감정을 묻느라 피곤하기도 한 우리에게 이날의 경험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배우기가 아니었을까. ☺

KOLON 사랑 나눔 현장

실천으로 더 행복한 시간들

이번 달에도 코오롱 각 사에서는 아이들,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놀이공원을 방문하고, 떡케이크를 만들었으며 추위와 맞서 이색 체험도 함께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오히려 더 행복했던 봉사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아름다운행복한홈스쿨 아이들의 떡케이크 만들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스포츠본부 임직원 10명은 1월 25일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아름다운행복한홈스쿨에서 어린이 20여 명과 함께 떡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년 전 처음 만날 당시만 해도 부끄러워 인사조차 못하고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하며 봉사단을 반겼다. 단원들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것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 봉사단과 아이들은 케이크 만들기를 하며 생크림으로 서로의 얼굴에 장난을 치기도 했다. 케이크를 엄마 또는 친구, 누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정성 들여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임직원들의 마음은 케이크에 꽂은 촛불처럼 따뜻하게 변해갔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쁘게 커가는 아이들에게 코오롱사회봉사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진주공부방 아이들과 신나는 놀이공원 방문기

인천공장은 1월 24일 진주공부방 아이들과 잠실 롯데월드를 방문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놀이공원 방문을 통해 진주공부방 아이들의 흥미 증진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진주공부방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받는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야외 활동인 만큼 봉사자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안전지도에 힘썼으며, 아이들은 봉사자들의 지도하에 함께 놀이기구를 타 자연스레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인천공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을 유지해갈 계획이다.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명덕행복한홈스쿨과 함께한 경주월드 체험

대구공장은 명덕행복한홈스쿨 어린이들에게 짜릿한 겨울을 선사했다. 맵싸한 겨울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던 1월 17일, 대구공장 봉사자들과 28명의 홈스쿨 어린이들은 1박 2일 겨울 여행에 동행했다.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경주 소재의 한 놀이공원에서 어린이들과 5개조로 나뉘어 놀이기구에 탑승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눈썰매장으로 장소를 옮겨 겨울을 제대로 즐겼다. 작은 키 때문에 놀이기구 탑승을 할 수 없었던 1·2학년 어린이들이 특히 눈썰매를 좋아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아쉬움 속에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한 임직원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면서 도리어 나의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코오롱글로텍

이한치한! 추위를 날려버린 사랑의 눈썰매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 16일, 코오롱글로텍 김천공장 직원 14명은 늘사랑의 집 장애우들과 금오랜드를 방문했다. 쌩쌩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이한치한! 눈썰매 파티’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추위도 저만큼 물러났다. 이번 활동을 기획한 정순재 반장은 “봉사활동을 하니 보람이 크고 기분도 좋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눈썰매를 타며 모두 함께 한 시간, 한겨울에도 뜨거운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는 김천공장 직원들에게는 시원한 겨울로, 장애우들에게는 따뜻한 겨울로 기억되길 희망한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이색 체험 활동으로 건강과 추억을 동시에!



1월 11일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 ‘왁자지껄’ ‘꺄르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였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섭고 추운 날씨였지만, 이색 체험 활동에 참여한 암시꿈나무아동센터 30여 명 아이들에게는 마냥 즐거운 시간이었다. 비탈진 언덕배기에서 눈썰매를 타고 벗짚 공예와 나무꾼 체험, 쫄깃쫄깃 인절미 만들기, 장작불에 감자·고구마 굽기 등 평소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은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함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



함께 만드는 퍼즐 : 엄마아빠회사 탐구생활



**코오롱인더스트리 박주영 과장, 옥상현 과장,
방향미 대리 자녀 초청 프로그램**

엄마, 아빠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란히 서 있는 코오롱 과천 본사 본관과 어린이집이 있는 별관.
평소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코오롱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가 선생님이랑 지내는
동안 엄마, 아빠는 바로 옆 건물에서 무엇을 할까, 어떤 친구랑 있을까?’
호기심이 가득한 6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회사 탐방에 나섰다.

글 성은경 / 사진 윤용식



01 팝업북을 만들며 아이들의
눈에 담긴 부모님의 모습을 표
현해봤다 02 달콤한 간식과 함께
전한 엄마, 아빠의 사랑 메시지가 담긴 영상 편지 03 엄
마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
무실 곳곳을 살펴보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얼굴을 담아 팝업북을 만들었어요!

과천 본사 1층 스페이스K에 세 가족, 6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평소 같으면 전시 작품을 뒤로하고 넓은 로비를 바쁘게 뛰어다녔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의젓하게 큐레이터 선생님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조금 어려운 작품 관람. 하지만 목탁으로 풍경을 그려낸 이재삼 화가의 작품을 보면 폭포, 나무, 바위 등 저마다 알고 있는 이름을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에 엄마, 아빠는 절로 미소가 번진다. 작품 관람이 끝나고 본격적인 체험 미술시간이 시작됐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려 넣은 팝업북을 만들기 위해 옆에 앉은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들. 살짝 고민하는 듯하더니 이내 크레파스로 쓱쓱 그려낸 그림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진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갈색 머리의 잘생긴 외국 배우처럼 아빠를 표현한 박주영 과장의 아들 지후, 분홍색을 좋아해 사자도 엄마도 모두 분홍색으로 표현한 방향미 대리의 딸 윤지. 이렇게 아이들은 어떤 틀에도 얹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완성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달콤한 시간

미술관 체험이 끝나자 기다리던 간식시간이 돌아왔다. 2층 비어드파파 앞에 자리 잡은 아이들에게 과일 주스와 미니슈가 차려졌다. 먹을 것 앞에서 싱글벙글 생기가 돈다. 바구니 가득했던 미니슈는 고사리 같은 손들이 몇 번 거치자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 달콤한 간식으로 한껏 신이 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 메시지가 담긴 영상 편지를 보여줬다. 평소 부모님에게 자주 듣던 “사랑한다”는 말도 예쁜 영상을 통해 만나니 더 특별해진다. 엄마, 아빠를 꼭 껴안는 아이들, 가족의 사랑이 뭉실뭉실 피어오른다.

드디어 엄마, 아빠의 사무실을 방문할 시간! 다른 사원들에게 방해될까 조심스러운 한편 부모님이 일하는 공간과 동료들을 접할 좋은 기회이기에 사무실이 위치한 15층으로 다 함께 향했다. 아이들은 투명 엘리베이터를 통해 맞은편 코오롱어린이집이 보인다며 반가워했다. 사무실 입구에 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직접 출입문을 열어 입장했다. 씩씩한 발걸음과 한껏 커진 목소리에 당황한 참여 사원들을 보며 오히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웃음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 엄마, 아빠의 자리에 앉아보고 잘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책을 보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아이들. 옆자리에 앉은 ‘엄마, 아빠의 친구들’에게도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한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전 아이들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좋아하는 캐릭터 학용품 세트를 받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를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에 사원 가족 모두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



01



02

01 사원 초청 프로그램의 첫 순서인 스페이스K 관람으로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다 **02**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아이들은 좋아하는 캐릭터 학용품 세트를 선물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Mini Interview

체험을 마치며…

둘째 지나(3세)가 코오롱어린이집 입학 추첨에 당첨돼 지후(7세)와 함께 다니게 됐어요. 축하하고 싶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후가 아빠 자리에 가서 앉아보고 컴퓨터도 만져본 것이 제일 좋았다고 하네요. 아빠 자리가 최고로 멋있답니다.

박주영 과장(코오롱인더스트리 Miocell사업팀)

서하(7세)와 서정(5세)이가 스페이스K에서 다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재밌었다고 하네요. 업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아빠가 일하는 공간도 보여주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옥상원 과장(코오롱인더스트리 석유수지사업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초청 프로그램에 윤수(8세), 윤지(6세)가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사보에 나온 모습도 같이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벌써부터 또 방문하고 싶다고 성화립니다.

방향미 대리(코오롱인더스트리 재무팀)



코리아이플랫폼 상품개발팀 유수영 과장 가족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만들기

달콤한 초콜릿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오늘 하루 유수영 과장이 아내, 아이들과 함께 쇼콜라티에가 돼보기로 했다. 손쉽게 사 먹던 초콜릿, 과연 만드는 과정은 어떨지 달콤한 향기가 솔솔 풍기는 수제 초콜릿 공방을 찾았다. 글 성은경 / 사진 이현구



예쁜 모양의 수제 초콜릿이 가득 진열된 초콜릿 가게에 들어서자 유수영 과장의 딸 채율이와 아들 지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을 피할 수 있으랴. 각양각색의 초콜릿 앞에 '맛있겠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온 가족이 앞치마를 차려입고 재료가 준비돼 있는 테이블 앞에 모였다. 유수영 과장과 아내 이규정 씨가 초콜릿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듣는 사이 막내 지호의 손은 이미 초콜릿 조각이 담긴 바구니와 입을 오가며 달콤한 세상에 빠졌다.

초콜릿에 사랑의 메시지를 새기며

첫 번째로 할 일은 초콜릿 중탕,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며 고르게 녹여야 한다. 규정 씨가 초콜릿을 중탕하는 사이 유수영 과장과 아이들은 초콜릿에 들어갈 견과류를 잘게 쪼갰다. 잘 녹인 초콜릿에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듬뿍 섞은 후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떠 유산지에 올린다. 일정한 모양 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못난이 초콜릿', 오늘의 첫 번째 초콜릿이 완성됐다.

"연애 시절 아내가 밸런타인데이에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 선물해주곤 했어요. 결혼한 뒤로는 기념일을 잘 못 캙기며 살았는데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줄 기회가 생겨 좋네요. 아이들과도 이런 체험의 시간을 자주 갖고 싶어요."

결혼 8년 차,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던 유수영 과장은 결혼 전 아내에게 받은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무척 감동적이었던 그 추억을 되살려 이번에는 아내를 위해 달지 않은 다크트리플초콜릿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트리플초콜릿을 만들려면 최상의 초콜릿 맛을 내기 위한 템플릿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녹인 초콜릿의 온도를 45°C까지 올렸다 27°C로 내리고 다시 30°C로 올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까다로운 일이다. 맛있게 녹인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넣고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2인 1조로 찍을 지어 종 모양으로 초콜릿 성형을 하기 시작했다. 힘이 넘치는 지호 덕에 귀여운 종보다는 강아지뚱 모양이 돼버린 트리플초콜릿을 보고는 모두 한참을 웃었다.

마지막으로 아내 규정 씨가 미리 만들어놓은 화이트초콜릿에 초콜릿펜을 이용해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써봤다. 유수영 과장 부부는 '우리 모두 사랑해, I Love U'를 새기고, 채율이는 아빠를, 아직 어린 지호는 자신만의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 서로에게 선물했다.

드디어 시식 시간이 돌아왔다. 견과류가 가득한 못난이 초콜릿과 약간 쌍싸래하지만 부드러운 트리플초콜릿을 서로의 입에 넣어줬다. 앞치마를 두른 아빠의 새로운 모습, 엄마와 딸이 함께한 첫 쿠킹 실습의 추억 그리고 만들기보다 먹기에 더 열중했던 지호의 모습이 가족의 마음속에 녹아들었다.

"초콜릿 만드는 것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필요한지 처음 알게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꼭 다시 만들어보고 싶네요."

이번 체험으로 초콜릿 만들기에 큰 관심이 생겼다는 아내 이규정 씨, 돌아오는 2월 14일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만들 초콜릿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졌다. 분명 세상 그 어떤 초콜릿보다 사랑이 가득하고 달콤한 맛일 것이다. ☺



달콤한 초콜릿 향과 각양각색의 모양
에 사로잡힌 채율이와 지호. 아직 어린
나이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 열심히 초
콜릿 만들기기에 집중했다.



미션에 성공하는 가족에게는 '잭니클라우스'와 '헤드'의 의류를 선물
로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보편집실(02-3677-3108,
sabo@kolon.com)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3월호 미션은 천연비누
만들기입니다.

직장인 日常 다반사

출근부터 외근, 퇴근, 야근까지 하루에도 몇 개씩
미션을 달성하는 직장인들. 불가능한 미션에 점하나만 찍으면
I'm possible!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가열차게
하나씩 도전해볼까요? 글 권정미 / 그림 임필영

직원들 명절
보너스 두둑하게
준비하신 사장님.
설마 보너스
지급이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겠죠?

동시업무와 교차업무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는
아수라백작 멀티
플레이어들. 출근하면서
퇴근하는 그런 노하우는
없나요?

야근은 없다. 칠판만 있을 뿐!
업무 처리의 달인인 그의 별명은
일당백, 비결은 Ctrl+C, Ctrl+V!

난 우물 제대로 파서 노다지 찾은
과장님. 얼마나 깊이 있으느냐에 달렸을
뿐, 모든 미션의 끝에는 달콤한 보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되면 되게 하라,
할 때는 잘되게 하라! 귀신도
때려잡던 군시절로 돌아가면
못 할 일이 없겠죠? 아, 물론
병장 시절은 빼고요.





세상 속 퍼즐 찾기 : 스페이스K가 소개합니다



스페이스K 이재삼 개인전 개최

Moonlight Anthology

코오롱그룹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 스페이스K는 1월 14일부터
이재삼(1960~)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문인화 전통을 서양화 재료인 목판으로 재해석하는 데 천착해온 이재삼은
이번 전시에서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풍광을 통해 우리 산하에 스민
신묘와 영험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글 황인성((주)코오롱 CSR 사무국 대리)

전시 일정

1월 14일~2월 28일 | 스페이스K_과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02-3677-3119

3월 4일~4월 26일 | 스페이스K_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 2층, 062-370-5948



↑

'달빛'227×728cm, Charcoal
on Canvas, 2006**자연물을 통해 달의 존재를 드러낸다**

화가 이재삼은 강릉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스무 번의 개인전을 비롯해 수많은 기획전에서 꾸준하게 작품을 선보여왔다. ‘문라이트 앤솔로지(Moonlight Anthology)’라는 부제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선 이재삼의 근작을 포함한 10여 점의 대형 작품을 전시했다.

한국화의 전통적인 소재를 필묵이 아닌 목탄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에는 매화와 대나무, 소나무, 폭포 등 자연물이 중심 소재로 등장하지만 화제(畫題)만큼은 모두 ‘달빛’이다. 작가는 고풍스럽게 빛을 빌하는 월하(月下)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진짜 주인공을 ‘달빛’으로 바꾸어놓는다.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오직 빛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는 여러 형상들은 외려 달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재삼은 대상을 가시화하는 데 밝은 부분은 하얀 바탕 그대로 남기고 어두운 부분은 덧칠하는 기법을 구사한다. 이렇게 비움으로써 드러내고 채움으로써 감추는 수법은 빛의 역설적인 존재 방식의 하나로 달빛과 일체를 이룬다. 역설의 미학은 작가가 작품 활동 내내 변함없이 고수해온 목탄이라는 재료적 속성에서도 엿보인다. 죽은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목탄으로 살아 있는 자연을 묘사한 그의 작품에서 생(生)과 사(死)의 순환 고리는 하나로 연결된다. 캔버스 위에 켜켜이 쌓아 올린 목탄 입자의 질고 거친 물성(物性)은 대자연에 내려앉은 유구한 세월을 의미하며 정서적 울림을 준다.

상상이나 생각 속에 있을 법한 관념 산수가 아닌 그의 실경(實景)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생명에 담긴 한국적 정신과 정서를 일깨운다. 특히 이번 개인전에 전시하는 2m 높이와 7m 폭에 이르는 대작은 마치 실물 크기의 풍경을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자아낸다. 우리 산하의 야경을 남다른 시선으로 조명한 이재삼의 개인전은 그야말로 달빛이 엮어낸 서정성 넘치는 화편을 가려 뽑은 ‘문집(Anthology)’과 다름없다. ☽



현대인을 위한 건강 필수품

영양제 Q&A

불규칙한 식사와 체력 저하, 만성피로 등으로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간편하게 영양소를 공급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제.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복용법과 권장량을 잘못 알면 독이
되기 마련이다. 올바른 사용법을 위해 전문가에게
영양제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정리 해빛(havit)

비타민 C, 많이 섭취할수록 좋을까?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감기나 노화·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춰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인간의 체내에서 저절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 등으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권장 섭취량은 100mg, 상한 섭취량은 2,000mg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 섭취량 이상의 고용량 요법이 좋다는 주장과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아직 분분한 상태입니다.

고용량을 권장하는 쪽은 비타민 C가 수용성이므로 고용량 섭취해도 여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위험보다는 질병을 예방, 개선, 증진시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에 반해 비타민 C를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 질환이나 신결석, 담석증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비타민 C의 최적 복용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필요한 비타민 C의 적정 섭취량 또한 정확히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비타민 C를 적당량 섭취하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C는 상한량인 2,000mg을 넘지 않으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단,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경우 영양제 형태로 일정량을 꾸준히 복용하되, 신장결석의 위험성이 있거나 위염, 속 쓰림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 후 바로 복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비타민 D의 섭취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 하면 흔히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손목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근력약화 외에도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압 상승을 막고, 혈관 염증이나 혈전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심장병과 뇌졸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비타민 D 농도가 다양한 암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비타민 D는 암세포의 소멸을 유도하거나 암세포를 가꾸는 것을 막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당뇨병, 호흡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비만, 정자의 운동성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1주일에 두 번 15분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을 쬐면 정상 혈중 농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은 음식이나 비타민 D 제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생선류,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 달걀노른자, 동물 간, 말린 표고버섯 등입니다. 그러나 식품으로 섭취하더라도 자외선을 쬐어야 비타민 D로 쉽게 활성화될 수 있고, 식품만으로는 뼈가 원하는 양의 비타민 D를 얻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영양제로 보충해주면 더 좋습니다.

영양제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할까?

자신에게 꼭 맞는 영양제 섭취는 대부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편식이 심한 경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 나이가 많아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 임신부 및 임신 예정인 경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인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꼭 맞는 제품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약과 영양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영양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 많이 먹어도 된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 40% 이상이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올 뿐더러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먹는 제품이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영양제의 복용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령과 증상, 성별, 질병,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따라 각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영양제를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며 각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증상과 질병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o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빛에게 물어보세요!



언제부턴가 배는 볼록, 다리는 훌쭉해진 ET 몸매의 김 대리도, 휴가철 비키니 입기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한 신 과장도, 가족들의 건강 식단이 궁금한 박 차장의 아내도 모두의 건강 소식통 해빛이 도와드립니다. 코오롱베니트가 만드는 건강을 위한 행복한 습관, 'havit(www.havitcare.com)'에서 더 많은 건강정보를 확인하세요!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코오롱제약의 리얼뷰티 제품을 드립니다. sabo@kolon.com, 모바일 사보는 설정▶문의 메일 보내기



페이스 클리어
소비자가격 2만3,000원
120정 1개월분



뷰티앤�ол라겐미인
소비자가격 2만9,800원
30포 1개월분



아쿠아 미인
소비자가격 3만9,000원
60캡슐, 1개월분



02



03

옛 정취를 따라가는 시간 여행 훈훈한 시골 외암 민속마을의 정겨운 밤상

그날 외암리 언덕 위에서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수확이 끝난 너른 들판은 순백의 대지로 변했고 시골집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하늘을 향해 수직 상승 중이었다. 외암 민속마을로 들어서자 오늘의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은 18세기 조선으로 날아가버렸다. 글·사진 이영근(여행작가)

알고 가면 더 즐거운 풍경

마을 입구에서 오래된 정미소와 구멍가게가 여행자를 반긴다. 요즘 시골다운 시골을 보기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곳 외암 민속마을은 주변 대부분 풍경이 전형적인 시골 모습이다. 구멍가게를 지나 매표소에 들러 다리 하나를 건너는 순간 시간 여행은 시작된다. 마을 중앙로를 걸어 올라가면 양쪽으로 기와집과 초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문객을 반기고, 군데군데 치솟아 있는 나무들이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이야기하는 듯하다. 길은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끝에서 굽이 돌아가면 가옥들의 지붕과 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다. 마을 뒤쪽으로는 너른 들판이 나오고 그 끝에 설화산이 있다. 마을의 공동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개울가로 나가면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네와 민속관, 체험 마당 등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외암 마을을 여행할 때는 세 가지를 알고 가야 즐겁다. 첫째, 외암의 뜻이다. 조선 시대에 이곳은 근처 시흥역 역말(관용 밀 관리소)의 밀을 거두어 먹이던 곳으로 ‘오양골’로 불렸다. 그 ‘오양’이 ‘오야’로 그리고 ‘외암’으로 정착했을 것이라는 게 유력한 가설이다.

둘째, 이 마을에는 실제로 ‘외암 이간’이라는 학자가 존재했다. 그가 쓴 〈외암기〉와 사료에 의하면 외암 마을의 본토박이는 ‘평택 진씨’였다. 참봉 진한평도 그 씨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딸과 혼인한 이사종을 마을로 들어와 살게 했는데 바로 그 이사종이 예안 이씨 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 지금은 마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01 옛집의 둘담에는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다 02 반찌반찌 윤이 나는 장독에서 안주인의 깔끔한 솜씨가 엿보인다 03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징승 04 외암 민속마을은 아직까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05, 06 소쿠리와 떨감을 볼 수 있는 정겨운 시골집의 모습 07 민박을 치는 집에 가면 정겹고 소박한 시골밥상을 맛볼 수 있다.

셋째, 전통 가옥의 구조를 알고 가면 풍경이 가슴 속으로 쏙쏙 들어온다. 안채는 ‘여성 공간’이다. 식사준비를 비롯해 제사 음식 준비, 길쌈 등 집안의 대소사를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랑채보다 크게 만든다. 외암 민속마을의 모든 가옥에는 안채가 있다. 건재고택, 교수댁, 참판댁 큰댁 및 작은댁, 송화댁, 감찰댁(이동식 가옥), 이준세가옥 등의 안채가 대표적이다.

안채가 여성 공간이라면 사랑채는 남자들의 공간이다.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가운데 부분에 대청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는 게 보통이다. 문간채는 보통 양반집과 같이 규모가 큰 살림집에서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하인들이 머물던 곳이다. 민박을 치는 집에서는 손님들에게 주로 문간채와 사랑채를 내준다.

소박한 밥상에 사계절이 담긴다

외암 민속마을 여행은 산책하고 관찰하는 일로 끝낼 수도 있고 마을의 깊은 곳까지 체험(단체만 가능)할 수도 있다. 별일 없는 한 일년 내내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인절미 만들기, 솟대 공예, 풍물, 염색, 두부, 모형곤충, 다식, 혼례복, 다도, 한지 부채, 서예, 연 만들기, 팽이 만들기, 썰매 타기, 조청한과, 김치 담그기, 메주 쑤기 등이 있다. 계절 프로그램도 즐겁다. 겨울에는 썰매 타기, 연·팽이 만들기 등을, 봄에는 모내기, 씨앗파종, 냉이·달래·쑥 캐기를, 여름에는 옥수수·밤·호박 따기 등을, 가을에는 추수 체험, 고구마와 옥수수 구워 먹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외암 민속마을 여행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게 ‘시골밥상 반기’다. 민박을 치는 집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시골밥상’에는 구수한 된장이나 청국장이 똘배기로 나오고 시골 특유의 장아찌, 그리고 나물 등 제철 식재로 만든 반찬이 등장한다. 시골 출신이라면 어머니 생각이 울컥 올라오는 정겨운 밥상이다. 외암 민속마을에서 가까운 현충사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가마솥붕어찜’의 민물매운탕은 아산 여행에서 놓칠 수 없는 별미다. 현관 앞 수족관에 있는 송사리, 메기 등을 즉석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신선하고 비린내가 전혀 없다. 송사리와 새우는 주인이 직접 하천에 가서 잡아온 것이고 메기는 ‘물고기를 먹여 키운 양식’을 사용한다.

외암 민속마을을 설령설령 둘러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다. 자세히 관찰하고 사진도 찍고 시골밥상까지 다 받아도 세 시간이면 충분하다. 자칫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계 여행지를 염두에 두는 게 좋은데 2011년에 개관한 이순신장군기념관이 있는 ‘아산 현충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며 숱한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공세리성당’, 물 좋은 도고온천 등은 민속마을 여행의 뒤풀이 장소로 손색없다. 모두 외암 민속마을에서 승용차로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



Tip

외암 민속마을 민박 체험

외암 민속마을의 모든 민박이나 체험은 홈페이지 [예약하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041-541-0848,
www.oeammaul.co.kr

아산 현충사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화요일 휴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41-539-4600,
www.hcs.go.kr

공세리성당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의 041-539-4600,
www.gongseri.or.kr

M12기를 소개합니다!

2013년 코오롱 밀레니엄 12기가
선발됐다. 패기와 열정으로 끊임
없이 움직인 168명의 M12기들!

각 사에서 저마다 새 출발을 할
이들의 다짐과 포부를 들어봤다.

정리 사보편집실 / 사진 윤용식



코오롱인더스트리

인더는 노력이다! Indu's 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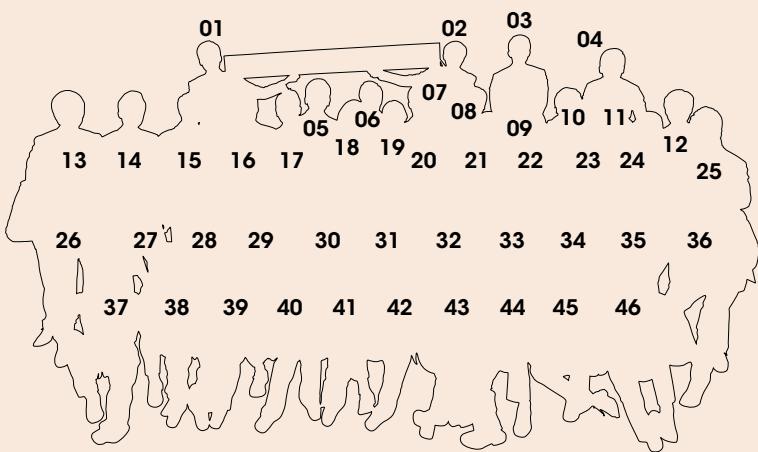
선서!

하나, 우리 M12기 46명은 인더스트리
제조부문의 각 부서에서 협력자가 된다.

하나, 우리 M12기 46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하나, 우리 M12기 46명은 기본을 바탕으로
생각이 깊은 인더스트리를 만든다.

01 배자원 02 김용기 03 이상욱 04 송현진 05 김영준 06 장진민 07 윤문규 08 양현식 09 안준형 10 김윤호
11 김형민 12 이규문 13 심무섭 14 이태형 15 흥승용 16 하성호 17 황재경 18 정지은 19 정영선 20 이은희
21 주아리 22 공해진 23 신동진 24 강지운 25 송병열 26 정대영 27 오종석 28 양동진 29 원도연 30 손정수
31 김지현 32 엄정배 33 서재일 34 한종훈 35 김대원 36 장일호 37 강성규 38 김선민 39 김용재 40 김상현
41 김용범 42 반용주 43 조재신 44 이재익 45 김현환 46 이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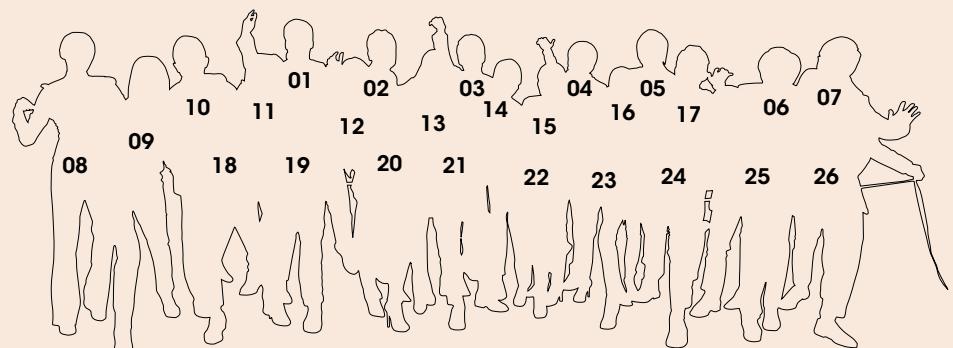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강남 멋장이 FnC!

멋쟁이가 되고 싶은가? 멋'장이'를 찾아오라! 최고의 패션 센스를 갖춘 우리, 독특하고 차별화된 멘탈, 선배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M12기!!



01 장정근 02 이충우 03 임재범 04 김재현 05 한동구 06 김동현 07 정문섭 08 이지예 09 진상희 10 김승현
11 김효진 12 함주영 13 백우진 14 안수라 15 임이랑 16 이재희 17 김기태 18 우재영 19 신동윤 20 박민선
21 최인창 22 김윤정 23 주지현 24 이유성 25 윤웅중 26 권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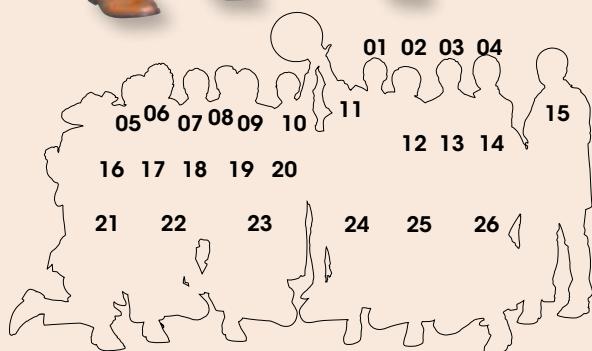




코오롱글로벌

우리의 Global Drea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뛰어 둘러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실천력으로 코오롱글로벌의 든든한 손이 되고 세계를 뒤흔들 M12기가 되겠습니다.



01 김기태 02 이희갑 03 안희성 04 최준수 05 박한능 06 여상현 07 공영민 08 김정섭
09 서형진 10 탁영현 11 김선길 12 윤재근 13 김부석 14 박원호 15 김성환 16 윤지웅
17 이한빈 18 조은소라 19 안여원 20 김영도 21 이준성 22 이태호 23 김이현 24 김상호
25 조승일 26 김지창



코오롱글로텍

17인의 무한한 아이콘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열정, 무한 긍정, 무한 체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졸지 않고 쓸지 않는 M12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코오롱글로텍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 해! 예!



코오롱피앤미디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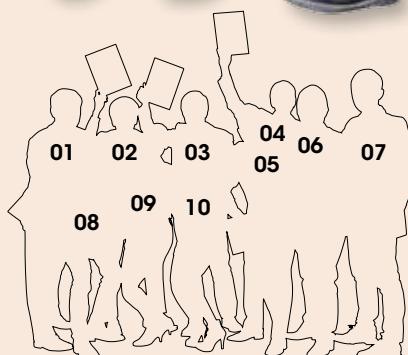
코 코피가 나더라도

오 오기로 끝까지 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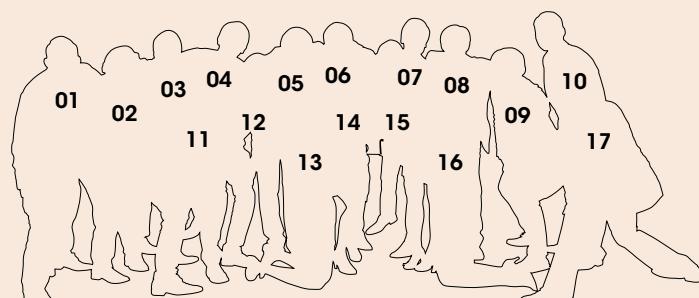
롱 롱런! 롱히트! 하겠습니다.

F Fantastic한 KFM

M M12가 만들어갑니다.



01 김지훈 02 박준영 03 양은석 04 김재혁 05 최봉기
06 이진우 07 연세민 08 박영길 09 김주란 10 이진아



01 강인환 02 홍기택 03 이교동 04 김영권 05 조용운 06 김남중 07 김영민 08 고명준 09 성영민
10 황해민 11 강복규 12 한동률 13 정민아 14 장혜령 15 이자수 16 김민주 17 노현석

코리아이 플랫폼 & 코오롱환경서비스

위기를 기회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도약을 위한 디딤돌 삼아 2013년 업계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코리아이플랫폼의 둠직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환경서비스

2013년을 활기차게 열어갈 M12기 168명 중에 당당한 1인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환경서비스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정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정재호, 김귀연, 전상우

코오롱플라스틱!

우리는 10명의 Major Global Player!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코오롱플라스틱은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처음은 때론 힘들고 두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공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 조각임을 잊지 않고 항상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포근한 올타리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각자의 위치에서 Major Global Player의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M12기 10명의 작은 날갯짓이 가져올 강력한 나비 효과를 기대해주세요.



(왼쪽부터) 김소정, 도승균, 이상윤, 박상도, 하혜진, 서보현, 서성원, 김해인, 이정우, 구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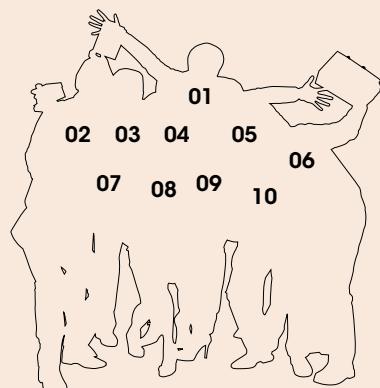
코오롱상명과학

K KOLON M12기, M12기로 하나 된 우리!

L Limited Edition, 특별함으로 차별화된 우리!

S Special Presents, 여러분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M12기가 그 파도를 더욱 힘차게 만들겠습니다.



01 서준호 02 탁호태 03 박자수
04 구건록 05 박상욱 06 이강표
07 표현기 08 권지희 09 박수진
10 홍종영



코오롱베니트

베 베일에 싸인 M12기가 곧 찾아갑니다.

니 니들이 무얼 할 줄 아느냐고 하시겠지만!

트 트러블 메이커에서 Best Benitian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장병철, 안슬아, 이숙재, 한종원, 공혜림, 김성현,
송혜린, 김혜연, 전진권

(왼쪽부터) 김민선, 박예은, 신현진, 문하양, 정명훈, 이수림,
조경우, 박진우, 정다운



2013년 M12기 신입입문교육 1부
코오롱 신입사원
6주간의 열정 이야기

드디어 코오롱그룹 M12의 주인공들이 선발됐다. 이들은 1월 2일부터 총 6주간 진행되는 신입입문과정을 통해 날마다 진정한 코오롱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패기와 열정 가득했던 3주 동안의 생생한 모습을 담았다. 글 김성호(코오롱인재개발팀 대리)





02



03



04



05



06

01 문무대왕릉 앞에서 희망찬 도약을 다짐해보는 168명의 M12기 02 입과식에서는 코오롱인으로서 결의를 다지는 입과선서가 있었다 03 1인당 5,000원으로 식사부터 숙박까지 하며 10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도전! 코오롱',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M12기의 행군은 계속 이어졌다 04 2박 3일간의 보행 랠리를 통해 전략 마인드와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05 K-pop(KOLON-pop) 영상 제작은 애사심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 06 '도전! 코오롱'을 위해 아영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꿈꾸는 사람, 그 꿈을 실현하는 우리!

매서운 한파를 뒤로하고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는 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 주인공은 2013년 코오롱 M12기, 168명이다. 1월 2일부터 시작돼 총 6주간 진행되는 이번 신입입문과정은 코오롱의 문화와 발전사, 사업과 비전 등 코오롱그룹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또 올해부터 2박 3일로 새로워진 보행 랠리를 통해 전략 마인드와 팀워크를 다지고, K-pop(KOLON-pop) 영상 제작을 하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키우고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력을 배웠다.

이렇게 2주 차까지 교육을 마무리한 신입사원들은 꿀맛 같은 첫 주말 휴식을 즐겼으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다. 바로 3주 차에 1인당 5,000원으로 식사부터 숙박까지 하며 10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도전! 코오롱',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M12기의 행군은 계속 이어졌다 04 2박 3일간의 보행 랠리를 통해 전략 마인드와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05 K-pop(KOLON-pop) 영상 제작은 애사심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 06 '도전! 코오롱'을 위해 아영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

그룹 블로그 & 페이스북 오픈

새로운 채널로 세상과 만나다

2012년 2월 1일 금요일, 코오롱그룹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채널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오픈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우리 그룹과 이용자들이 소통하는 활기찬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 민수연((주)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주임)

그룹 블로그 '더 펀타스틱(The Funtastic)'

kolonblog.tistory.com

그룹 블로그 '더 펀타스틱(The Funtastic)'은 펀(Fun)과 판타스틱(Fantastic)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코오롱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온, 또 미래에 만들어 나갈 즐겁고(Fun) 환상적인(Fantastic)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란 뜻이며,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코오롱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룹 및 각 계열사(브랜드)의 소식과 코오롱 임직원의 역동적인 회사 생활을 소개하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흥미롭게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의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LL ABOUT KOLON'에서는 코오롱 사업과 활동, CSR, 채용 등의 소식을 전달하고 'KOLON'S BOOKMARK'에서는 아이디어, 라이프, 트렌드 등을 주제로 한 공감·흥미형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더 펀타스틱'은 우리 그룹 계열사 곳곳의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기능도 수행합니다. 즉, 코오롱과 세상이 만나는 공간이자 코오롱이 코오롱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메인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패밀리 블로그 새글] [KOLON FAMILY SNS] 메뉴를 통해 계열사(브랜드)들이 전하는 주요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룹 블로그 '더 펀타스틱'의 활성화를 위해선 임직원들이 퍼즐을 완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작성, 다음부 추천 버튼 클릭,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블로그 링크 공유하기, 이벤트 참여하기가 그룹 블로그를 '더 펀타스틱' 한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룹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longroup

그룹 페이스북은 그룹과 계열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로 내·외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 신제품 정보, 사내 소식 등을 그룹 페이스북 담당자(kolonsns@kolon.com, 02-3677-3108)에게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룹 페이스북을 통한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 제안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 회사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언급(댓글, 공유 등)은 주의하여 SNS 상에서도 성숙한 코오롱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코오롱 페이스북 주소(www.facebook.com/kolongroup)를 클릭, '좋아요'를 누르면 코오롱이 전하는 즐거운 세상 이야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 페북지기가 전하는 코오롱 이야기에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나의 타임라인에 해당 콘텐츠를 가져와 스크랩하는 것) 등의 적극적인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픈일에 맞춰 페이스북에서 '퍼즐로 알아보는 2013 인맥지도' 이벤트도 시작합니다. 2013년 한 해 주위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인맥지도를 완성하면 1,000명의 패친에게 비타민 워터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의 ‘살맛나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오운문화재단에서는 코오롱사외보 〈살맛나는 세상〉 발행은 물론, ‘우정선행상’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선행, 따뜻한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오운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을 알아봤습니다. 글 오수민((주)코오롱 CSR사무국 대리)

오운문화재단에서 꽂피는 이웃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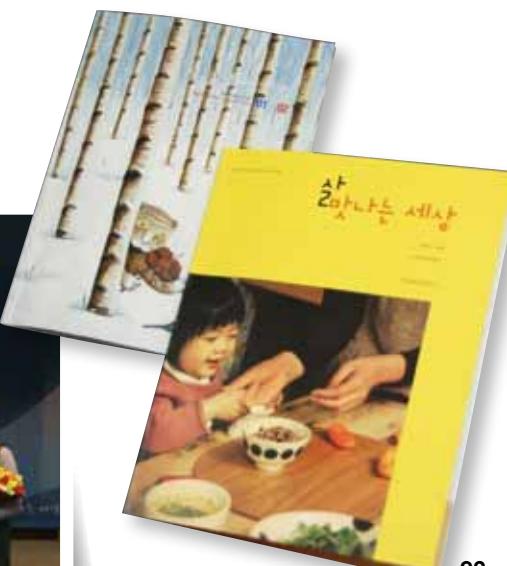
코오롱 사외보 〈살맛나는 세상〉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주변의 선행, 미담을 널리 알리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무료 격월간 지로, 코오롱의 재단법인인 오운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살맛나는 세상〉이 코오롱에서 발행하는 책자임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는 코오롱 사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책자에서 코오롱의 색채를 드러내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조용히 선행, 미담 사례를 격려하고자 한 이동찬 명예회장님의 뜻을 〈살맛나는 세상〉에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살맛나는 세상〉이 정말 눈에 띄게 확~ 달라졌답니다. 우선 그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보여주는 것은 표지 디자인과, 제호 디자인, 그리고 시원하게 커진 책자 사이즈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살맛나는 세상〉은 올드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선행, 미

담집의 성격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살맛’나게 살아가기 위한 정 보들을 함께 수록한 책자로 변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세상〉을 발행하고 있는 오운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우정선행상’ 개최로 사회 각지,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봉사와 희생의 건전한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분들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정선행상은 총 상금 1억 원 규모의 시상식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에서는 궁극적으로 각계각층의 선행, 미담사례를 수집하고 사회에 널리 알리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운문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코오롱 사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01 오운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우정선행상’을 개최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있다. 02 표지와 제호디자인, 책자 사이즈 등 새옷을 갈아입은 코오롱 사외보 〈살맛나는 세상〉.



02

Now in KOLON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시리즈, 커스텀멜로우, 래;코드, 슈콤마보니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간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이 전개하는 시리즈와 커스텀멜로우, 래;코드, 슈콤마보니 4개 브랜드가 해외 유명 전시회에 나란히 참가하며 패션 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브랜드가 저마다 아이덴티티를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과 패션 피플의 관심을 모았던 그 기록을 공개한다. 글 김희진(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마케팅팀 대리)



코오롱의 'K-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다

시리즈와 커스텀멜로우는 1월 8일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진행하는 제83회 '피티 워모(PITTI UOMO)'에 참가했다.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개최되는 '피티 워모'는 남성복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브랜드는 물론 패션에 관심 있는 브랜드라면 어디나 참가하고 싶어 하는 남성 어파럴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회다.

2011년 제81회 전시회부터 시작해 세 번째 '피티 워모'에 참가한 '시리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Ynformal'관에 부스를 마련해 강점인 점퍼, 스웨터, 셔츠류와 국내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2012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한 '커스텀멜로우'도 'L'altro Uomo'관에 부스를 마련해 커스텀멜로우만의 색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VOYAGE 라인(컬렉션 라인)'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3월 론칭해 화제가 되고 있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래;코드(RE;CODE)'도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캡슐(Capsule)쇼'에 등장했다. 캡슐쇼는 매년 2회 뉴욕, 라스베이거스, 파리, 베를린에서 열리는 패션 페어로 브랜드 및 디자이너의 가치를 보여주고 패션 마켓의 흐름과 정보를 교환하는 쇼다. 래;코드는 이번 쇼에 밀리터리 라인을 비롯해 박선주, 강성도, 정재웅 디자이너와 올해 새롭게 합류한 남성복 디자이너 서병문, 김무겸의 작품 등 총 100여 가지 아이템을 선보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막내 브랜드 '슈콤마보니'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Who's Next & Premiere Classe'에 참가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워커 및 하이톱 스니커즈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Who's Next & Premiere Classe' 행사는 프랑스에서 각각 연 2회, 4회씩 개최하는 유럽 최대의 패션 의류, 액세서리 박람회로 패션 브랜드들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

코오롱스포츠 2013 S/S 컬렉션

아웃도어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1월 24일 코오롱스포츠의 2013 S/S 컬렉션을 선보이게 된 비온드뮤지엄은 벌써 봄을 맞은 듯 푸른 하늘과 포근한 구름들로 단장하고 있었다. '과연 저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외관이었다. 하늘처럼 연출된 전시장 문을 열면 4차원적인 새하얀 공간과 박스 형태의 프레임 안에 코오롱스포츠의 시즌 컬렉션이 다이내믹하게 펼쳐져 있다.

글 김희진(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마케팅팀 대리)



코오롱스포츠가 2013년 첫 시즌을 위해 선택한 테마는 '유토피아(Utopia)'. 언뜻 추상적이면서 철학적으로 보이는 이 주제는 오히려 이번 컬렉션에 무한한 자유로움을 선사했다. 설치미술가 노동식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자연뿐 아니라 거리, 스포츠, 댄스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다이내믹 한 순간을 포착, 패션과 아트를 접목한 전시 형태로 구성했다.

'Your Best Way to Nature'라는 슬로건 아래 아웃도어의 영역을 산에서 더 넓은 자연 공간으로 확대 해가고 있는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컬렉션에서 지상뿐 아니라 '바다'까지 포함시켰다. '유토피아' '세 일링(Sailing)' '아프리카' '오가닉 젠(Organic Zen)'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한 이번 시즌 컬렉션은 아웃도어 스타일로 코드화돼 있는 기존의 컬러를 재검토하고 재해석했다. 아프리카 테마의 작품들은 한층 따뜻한 색감으로 이색적인 느낌을 더했으며, 차기운 컬러는 물, 폭포, 바다와 같은 자연의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색다르게 표현했다. 프린트 역시 자연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는데, 노골적인 차용이 아닌 코오롱스포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 새롭게 탄생했다.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오래된 40년 역사를 지닌 코오롱스포츠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도 이번 시즌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최고의 투습력을 지닌 아토텍(Atto Tek, 코오롱스포츠만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첨단 소재)에 기반한 소재와 초경량이면서 스트레치 기술을 적용해 활동성을 높인 모션테크(Motion Tech, 인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기술) 소재를 적용한 패턴 등이 그것. 이러한 기술력의 산물들이 아웃도어 영역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코오롱스포츠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다.

꿈을 꾸는 듯 코오롱스포츠의 S/S 컬렉션을 돌아보고 비온드뮤지엄을 나서는 순간, 매서운 바람이 코오롱스포츠가 전한 '아웃도어의 유토피아'가 얼마나 평온하고 강렬했는지 깨우쳐줬다. 40주년을 맞은 코오롱스포츠가 올 한 해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시도가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



박스 형태의 프레임 안에 다이내믹하게 연출된 이번 컬렉션은 코오롱스포츠의 'Your Best Way to Nature'라는 슬로건처럼 무한한 자유로움을 선사했다.

2013년 w-store 신년 세미나

특강!

약국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1월 27일 일요일 코오롱타워 본관, 코오롱웰케어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0여 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임 김경용 대표이사의 'New Start from the Basic'이라는 2013년 경영 방침, w-store의
비전과 '신뢰받는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약국 선점을 위한 열정!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봤다. 글 류승은(코오롱웰케어 지원팀 대리)



약업계의 선구자 박영순 회장(위)과 정재훈 대표(아래)를 특강자로
초빙해 가맹약사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New Start from the Basic

코오롱웰케어는 2013년부터 새롭게 도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
가고 있다. '2013년 w-store 신년세미나'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1부에는 코오롱웰
케어 전 이우석 대표이사의 이임사와 함께 '120세 장수하는 식이요법 상
담'이라는 주제로 약학박사 박영순 회장(전 온누리약국체인 창업회장)
의 특강이 있었다. 약업계의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는 박영순 회장을 신
년 세미나 특강자로 모시기 위해 김경용 대표이사가 주말 동안 그의 자
택이 있는 제주도로 직접 출장을 가 설득했다.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제공했으며 엠에스홀딩스팜 문재
빈 회장(전 서울시약사회 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w-store 목동영민점의 조덕원 약사, 구로구약사회 회장이자 w-store
남구로청와점 송경희 약사의 간배 제의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팜스터디 대표 정재훈 약사가 '약사의 미래 : 주도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해외 약국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한국의 현 시장 형태와 비교해 '드러그스토어'에 대한 약국의 변



김경용 대표이사(무대중앙 앞줄 좌측)와 전 직원은 다 함께 무대에 올라 단체 인사를 하며 임직원 서약 시간을 가졌다.

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특히 약사들에게는 'w-store'가 바로 그 해답이라는 명쾌한 강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0여 개 가맹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실 약국은 대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거나 휴일은 오직 일요일 하루뿐이다. 그 하루를 개인적인 휴식이 아닌 신년 세미나를 위해 할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김경용 대표이사는 직접 약국장 한 명 한 명을 위해 친필 사인을 한 초청장을 준비했다. 또 담당 DA(Drugstore Adviser)들이 약국을 방문해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저희의 2013년 경영 이념은 'New Start from the Basic'입니다. 코오롱웰케어가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번 신년 세미나입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울산, 광주 할 것 없이 총 180여 명의 약사와 주요 업체 대표들이 모였으며 이는 당초 예상 인원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요즘 코오롱웰케어 본사 건물은 밤 10시, 11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 그 원동력은 신

년 세미나에 있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냈다는 것, 바로 'New Start from the Basic'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웠다는 생각에 전 직원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약사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오롱웰케어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대표이사의 진심이 담긴 인사말에 약사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곧이어 임직원 서약식에서 전 직원은 다 함께 무대에 올라 앞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믿음의 인사를 했다. 약사들은 "이미 w-store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뛰어넘었다!"는 찬사로 답했다.

세미나 마지막에 진행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응답자의 75%, '만족'이 25%로 참석자 전원이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를 마치고 직원들은 그 동안 준비를 위해 뛰어다녔던 피곤함도 잊은 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성공퍼즐로 무장하고 팀워크로 뭉쳐 조기 흑자 구현, '국내 최고 드러그스토어 1,000개 가맹 돌파'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w-store 파이팅! ☺



→
그룹

통일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그룹 사회공헌 웹사이트 오픈

코오롱의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 오운문화재단의 '살맛나는 세상', 그리고 코오롱 임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코오롱가족 사회봉사단'의 사이트가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됐다. 각 단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코오롱'의 사회공헌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이트들을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 웹사이트가 리뉴얼 오픈한 데 이어, 1월 21일 '살맛나는 세상' 웹사이트가 새롭게 오픈했으며, 곧 '코오롱가족 사회봉사단' 웹사이트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01 제23회 구미상공대상 기술대상 수상

설비기술 담당 장희현 상무가 1월 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3회 구미상공대상'에서 기술대상을 수상했다. 기술대상은 기업경영 활성화와 상공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영, 무역, 기술 등 3개 부문에 큰 기여를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장희현 상무는 26년간 기술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며 설비의 선진화, 자동화, 국산화를 실현해 강철보다 강한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 핵심 설비 국산화 등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02 무재해 목표 8배수 달성

여수공장은 12월 2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 8배수 달성을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수여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수지도원 원장과 관계자, 인증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특히 생산팀 권순노 과장이 무재해 달성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무재해 목표 8배수 달성을 계기로 여수공장은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 유지를 위해 전 임직원들이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럭키슈에뜨 캐릭터 가미한
미오셀 아테나 출시**

프리미엄 항균 원단 '미오셀'이 신학기를 겨냥해 독특한 올빼미 프린트 소품을 출시했다. 미오셀은 첨단 기술력으로 직조해 가늘고 촘촘한 조직을 갖춘 프리미엄 원단으로 탁월한 부드러움과 가벼움은 물론 항균, 항진드기, 항알레르기 기능으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출시한 '미오셀 아테나'는 '럭키슈에뜨'와 콜라보레이션해 탄생한 제품으로 인정감 있는 옐로 컬러에 럭키슈에뜨의 심벌인 올빼미(슈에뜨) 프린트가 이색적이다. 특히 올빼미는 지혜와 전투의 여신 아테나의 상징물로 학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아테나처럼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승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미오셀 아테나는 신학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목 베개, 방석, 핸즈 쿠션, 미니 쿠션, 앤대, 슈에뜨 쿠션의 6종을 1차로 출시했으며, 2월 1일부터 조이코오롱(www.joykolon.com)과 럭키슈에뜨(www.luckychouette.com) 사이트를 비롯해 텐바이텐, 1300K 등 디자인 전문 몰, CJ몰, 11번가, GS몰을 통해 판매한다.



→
코오롱글로벌

OHSAS 18001 인증 취득

코오롱글로벌이 12월 31일 독일 인증기관인 TUV SUD사(社)로부터 OHSAS 18001 인증을 취득했다. OHSAS(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 인증이란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정한 규격을 말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대외적으로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회사의 품질, 환경, 안전 등 종합적인 관리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번 인증 취득으로 안전법규 준수,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적용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해 '인간 존중' '생명 중시' 경영을 기반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02 수처리 관련 녹색 기술 인증 획득

코오롱글로벌이 (주)평화개발과 함께 개발한 '저동력 폭기 · 교반 스윙 기술'이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인증받은 스윙 기술은 폭기 기능과 교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저동력 수처리 장치로 기존 수처리 장비 대비 산소 전달률 58% 개선, 20%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윙 기술을 응용한 장비들은 청주 폐수처리장, 광주시 음식물처리장 등에서 이미 시범 적용 중이며 가격 역시 기존 유사 해외 기술 대비 5배 가량 저렴해 향후 상업화의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녹색 기술 인증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하 · 폐수처리장의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코오롱글로벌이 대표적인 수처리 기업으로서 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녹색 기술 인증이란, 정부가 유망 녹색 기술 및 사업에 대해 금융, 세제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환경부 등 전담 기관이 심사, 인증하고 있다.

03 제1회 코오롱글로벌 O.I. 경진대회

코오롱글로벌이 합병 후 처음으로 12월 31일 제1회 코오롱글로벌 O.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들에게 포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O.I.부문, 마케팅부문, 상생협력부문으로 나누어 한 해 동안 원가 절감, 프로세스 개선 등 우수한 성과를 올린 팀과 개인을 수상하는 자리다. 최우수 혁신과제 O.I.부문 수상은 환경BU의 요르단 암만 현장에게 돌아갔다. 요르단 암만 현장은 하수처리장의 Strategic Transformer를 통해 원가 절감과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가 원가 절감, 프로세스 개선인 만큼 앞으로도 원가 절감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회사의 발전과 경영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04 코오롱글로벌 연이은 무재해 준공

코오롱글로벌이 연이은 무재해 준공을 달성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준공 인증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 오리~수원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 분당선현장,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현장은 각각 271만 시간, 35만 3,330시간, 36만7,120시간의 무재해를 달성하며 준공을 마무리했다. 특히 오리~수원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현장은 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재해를 달성함으로써 다른 현장과 기타 동종 업계의 귀감이 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앞으로도 모든 현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재해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코오롱글로벌의 안전 시공 능력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
코오롱글로텍

01 코오롱글로텍 1사1교 자매결연

코오롱글로텍은 12월 17일 경상북도 칠곡 교육청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현재 칠곡 대교초등학교와 1사1교 자매결연을 체결해 장학금과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자매결연을 주관한 코오롱글로텍 구미공장은 이번 감사패 수여를 계기로 대교초등학교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발전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2 자녀 그림 이색 이벤트 개최

코오롱글로텍은 최근 사내 조직문화의 화두인 GWP, Work & Life Balance를 위해 '자녀 그림 콘테스트'라는 이색 이벤트를 실시했다. 임직원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직원 휴게 라운지 게시판에 부착하고, 직원들의 투표에 따라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콘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삼삼오오 그림 주변에 모여 누구를 그린 것인지 이야기하는 등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녀 그림이 우수 작품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케이크 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해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코오롱글로텍은 큰 호응을 얻은 이번 이벤트에 힘입어 직원들의 GWP, Work & Life Balance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코오롱패션머티리얼



01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신년 세미나 개최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개최한 2013년 신년 세미나를 업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업계의 친목과 소통, 나아가 한국 섬유산업 활성화의 장을 마련한다

는 취지로 매년 개최해온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의 신년 세미나는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하는 섬유업계 최고의 신년 행사다.

1월 4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된 신년 세미나에는 '2013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 혁신 전략'을 주제로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와 강연자로 나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과 업계의 대응 전략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1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신년 세미나에서는 신세돈 교수의 1부 강연에 이어 서울대병원 윤대현 박사가 김성 의학과 멘탈 피트니스 '뇌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윤 박사의 강연에서는 세상의 변화와 경쟁 등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현대인의 뇌를 위한 솔루션으로 인간과의 교감 등을 제시했다.

02 양주시와 첨단 기능성 니트 원단 생산시설투자 MOU 체결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이 1월 10일 과천 본사에서 경기도 양주시와 흥죽산업단지 내 첨단 기능성 니트 원단 생산시설투자 MOU를 체결했다.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세계 경기 불황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기능성 원단 시장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양주공장은 세계 경기 불황이 해소되고 중국 아웃도어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을 겨냥해 연내 가동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2018년 니트 사업 부문에서만 1,500여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계획이다. 손을 상무는 “양주공장은 코오롱 섬유 50여 년의 저력이 투영될 개발 중심형 첨단 공장으로 세계적인 니트 생산 거점인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해 지역의 니트 산업을 선진화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니트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코오롱플라스틱



01 코오롱플라스틱의 성공퍼즐을 완성하라!

코오롱플라스틱은 1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성공퍼즐 완성대회를 실시했다. 재미있는 퍼즐게임을 통해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더 큰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열린 이번 대회는 과천과 김천 각 사업장에서 팀별로 실시됐다. 시원들은 코오롱그룹 임직원의 얼굴이 새겨진 117조각의 퍼즐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누구 하나 빠짐 없이 집중하며 의견을 나눴다. 짧은 시간 내에 이 퍼즐을 다 완성할 수 있을까 했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천사업장에서는 사업1팀이 7분 57초로 1등을 차지하고, 김천사업장에서는 환경공무팀이 무려 4분 20초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팀 단합을 자랑하며 1등을 차지했다. 김호진 대표이사는 뛰어난 팀워크를 보인 모든 사원들을 격려하며 “성공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모든 임직원은 하나의 퍼즐이므로 한 명이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 준비된 도전과 제2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당히 도전하라”고 덧붙였다.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01 ADB 세미나 참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이수영 대표이사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된 ADB(Asian Development Bank) 세미나에 참가했다. ADB는 아시아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위한 개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은행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리핀 최대 기업 Ayala Group의 자회사인 마닐라워터와 함께 양국의 시장 트렌드를 교류하고 국가 산단 처리장의 시공 및 운영, 소재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긴밀히 모색했다. 앞으로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국제기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갈 예정이다.



02 성공배지 전달식으로 점화된 코오롱워터앤 에너지 성공 이유

코오롱그룹 최초의 여성 CEO인 이수영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정형화된 취임식 대신 회장님께서 주신 성공배지를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며 그 취지를 함께 공유했다. 권위주의와 겉치레를 없애고 실질적 성과 만들기에 집중하자는 이수영 대표이사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2013년 대표 이사 실행 지침인 'Service & Solutions 2013'에도 그대로 녹아들었다.

현재 전국 52개 사업소와 35개 현장을 두 달 안에 모두 Check-up 하겠다는 이수영 대표 이사는 CEO 상석을 따로 두지 않고 불필요한 꽃 장식과 펜슬 받침대를 없애는 등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 현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메뉴까지 꼼꼼히 챙기는 등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코오롱생명과학

2013년 목표 달성 전략 워크숍 개최

코오롱생명과학은 1월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3년 목표 달성 전략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부문별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2013년 핵심 전략 과제 및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후속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영업본부는 대응 전략 실행,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기술 확보를 2013년 경영 목표로 수립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워크숍에서 논의한 중장기 성공 로드맵과 2013년 경영 목표를 팀·개인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반영하고, 사업부·팀·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코오롱베네트



01 베트남 차세대 증권시장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체결

코오롱베네트가 한국거래소(이하 KRX)가 추진하는 베트남 차세대 증권시장 시스템 구축사업에 나선다. 12월 26일 KRX와 베트남 호치민증권거래소가 맺은 구축사업 계약 체결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 이번 사업은 베트남 증권시장과 관련한 매매체결, 시장정보, 시장감시, 청산결제 및 예탁등록 등의 모든 증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코오롱베네트는 그동안 KRX 차세대 시스템(EXTURE) 구축 등을 통해 쌓아온 금융IT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감시 시스템 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02 산후조리원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론칭

코오롱베네트가 종합병원, 내과 개인 병원에 이어 산모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오롱베네트는 1월 10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그라미, 라테라, 아자르, 르

베르쏘, 궁 등 고급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130여 개 주요 산후조리원에 '해빛 태블릿 PC'를 설치해 산모를 위한 '토털 육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조영천 대표이사는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전문 육아·건강 정보와 알찬 육아 준비 노하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산모와 아이의 행복한 첫 출발에 꼭 필요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03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과 나눔협약

코오롱베니트가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과 1월 15일 나눔협약을 맺고 태블릿 PC 기부를 통한 건강 정보 제공과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애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숙식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 아동 양육 지원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기관이다. 코오롱베니트는 나눔협약을 통해 현재 종합병원·산후조리원 등에 설치하고 있는 '해빛 태블릿 PC'를 애란원에 기부·설치하고, 미혼모들의 건강과 육아를 위한 헬스케어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코오롱제약



Foster Marketing Workshop 개최

마케팅부 Foster팀(홍상기 과장, 김혜은 과장, 권형우 대리, 임효은 주임)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리고 이탈리아 Chiesi사(社)가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Foster Marketing Workshop에 참가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Foster를론칭한 코오롱제약은 Foster PM(Product Manager)인 권형우 대리가 'Sharing Experience of Foster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다양한 질문 및 토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Workshop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인 Foster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동 제품을 100억대 품목 및 코오롱제약의 Cash-cow로 키우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우나오션개발

01 2013년 새해 여행은 이렇게!

경주 동대산 자락의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는 골프와 콘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우나골프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골프와 콘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골프패키지뿐 아니라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패밀리 스파, 피부 미용, 체형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문의 054-740-0606, www.mauna.co.kr



02 눈과 입이 즐거운 경주 여행

천년의 고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는 2013 코리아 그랜드세일 기간을 맞아해 외국인 및 내국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코오롱호텔 3층 부페 레스토랑 파노라마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3중 협연 주회가 열리며 70여 종의 세계 진미를 맛볼 수 있는 토요 디너 뷔페로 경주 여행에 뜻 깊은 추억을 선사한다.

문의 054-740-5122, www.kolonhotel.co.kr



내 손안의 풍경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어떤 풍경이 담겨 있나요? 일상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모습, 신기한 장면, 즐거운 추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보편집실(sabo@kolon.com)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하이트진로(주) 수입 와인을 보내드립니다.

* 사진 원본의 용량은 1MB 이상



2012년 코오롱 캘린더를 이용해 데카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테두리에 전선 테이프를 붙여 액자 분위기를 내고, 2년 전 식탁 구입하며 생긴 나무판을 덧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좋은 그림 액자 하나 걸어두고 싶었는데 멋진 달력을 재활용한 덕에 몇만 원이나 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미나(코오롱패션머티리얼 사원)

독자 의견

독자 의견은 이메일(sabo@kolon.com)로도 받습니다. 사보편집실은 코오롱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보 엽서 보내실 곳

주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17층 사보편집실 앞
전화 02-3677-3108 팩스 02-3677-3198

이메일 sabo@kolon.com

과천 시옥 사우들은 지하 1층 문서수발실 앞에 마련된 홍보팀 우편함을 이용해주세요.

편집실 선물 꾸러미

사보편집실에서 독자엽서와 메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미오셀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미오셀 허리 베개

소비자가격 40,000원
(37×47cm)



미오셀 마이크로케어

소비자가격 212,000원
(150×200(높이28)cm)



미오셀 영유아 베개 세트

소비자가격 78,000원
(30×50cm)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영국알러지재단(BAF) 항알러지, 항진드기 동시 인증 원단. 미오셀 코오롱의 첨단 기술로 제조한 프리미엄 항균원단 미오셀로 탁월한 항균효과와 부드러움까지 체험해 보세요.

홈페이지 www.miocell.co.kr
제품 문의 080-785-3000

주제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본사 김기수 대리 · 구미공장 장윤혜 주임 · 김천1공장 윤승현 주임 · 경산공장 정성모 주임 · 중앙기술원 윤미선 대리 · 중앙기술원 (구미) 이영인 대리 · 울산공장 여영화 차장 · 김천2공장 최선아 대리 · 인천 공장 김수홍 사원 · 중앙기술원(인천) 정경진 주임 · 여수공장 이진혁 주임 · 소주법인 정동완 과장 · 남경법인 이재호 부장 · 인도네시아법인 김일섭 차장 · FnC부문 김희진 대리 ***코오롱글로벌** 경영기획SC 주영덕 주임 · 스포츠BU 권영호 주임 · 유통/서비스BG 황상훈 과장 ***코오롱글로텍** 본사 문은진 주임 · 구미공장 이동준 차장 · 인재개발센터 김성호 대리 · 천안공장 박병진 대리 · 김천공장 김재현 담임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본사 최종범 차장 · 김천공장 김대웅 대리 · 대구공장 제갈진희 주임 ***코리아이플랫폼** 박상운 대리 ***코오롱플라스틱** 김현경 주임 ***코오롱워터엔에너지** 김윤래 주임 ***코오롱생명과학** 박세희 주임 ***코오롱베니트** 안완교 과장 ***코오롱제약** 본사 이운영 대리 · 대전공장 김경희 대리 ***네오부코오롱** 류시현 대리 ***마우나오션개발** 박정국 대리 · 호텔 손익창 대리 ***코오롱웰케어** 류승은 대리 ***케이에프엔티** 김형준 차장

Limited Edition!



MIOCELL® ATHENA

피부에 닿는 순간, 최상의 컨디션으로!

프리미엄 항균원단 MIOCELL®이 LUCKY CHOUETTE 와 만났습니다

MIOCELL® ATHENA

미오셀 아테나의 의미?

쾌적함을 제안하는 항균원단, 최상의 컨디션 MIOCELL® 과 '지혜의 여신'을 상징하는 올빼미 캐릭터 LUCKY CHOUETTE 의 컬라보레이션을 통해 아트와 힐링의 창의적인 스페셜 에디션 탄생했습니다. 럭키슈에뜨의 아트 캐릭터 올빼미는 지혜와 전투의 여신 아테나의 상징물로 늦은밤에도 어둠을 뚫고 볼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함께 **학업, 지혜, 학식의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오셀 아테나'는 조이코오롱(www.joykolon.com), 럭키슈에뜨(www.luckychouette.com), 텐바이텐, 1300k, CJ몰, 11번가, GS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됩니다.



www.miocell.co.kr

MIOCELL® ATHENA PRODUCTS INFO



Eye Mask

슈에뜨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안대로 특특튀는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부드러운 재질의 프리미엄 항균원단으로 쾌적하고 안전합니다.

₩ 37.000



Mini Pillow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미니 베개, 원단의 진드기 차단기능으로 피부 건강 및 쾌적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 47.000



Hands & Facial Cushion

쿠션감과 보온성이 뛰어난 쿠션으로 양쪽 사이드에 손을 넣을 수 있어 보온성이 뛰어나고 베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67.000



Chouette Cushion

올빼미의 이미지가 부각된 매력적인 쿠션, 어린아이, 청소년, 신혼집, 카페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 87.000 (출시예정)



Neck Cushion

특특튀는 디자인으로 디자인성이 돋보이는 목 베개로 원단의 진드기 차단기능으로 피부 건강 및 쾌적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 57.000



Sitting Cushion

쿠션감이 돋보이는 방석으로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하고, 기본 스타일로 의자, 소파 등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프리미엄 항균원단으로 쾌적하고 안전합니다.

₩ 77.000

독자엽서

사내 연락으로는
우표 없이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성별: 남, 여 나이: 세

소속 회사:

부서 명:

전화번호:

주소:

□□□-□□□

받는 사람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17층

KOLON 사보편집실 앞

4 2 7 - 7 0 9

성금을 일상하는 미리 한 조각, 바로 당신입니다.

풀칠하는 곳

사보 속 퍼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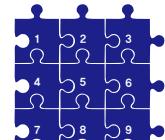
사보 페이지 곳곳에 숨어있는 퍼즐조각을 찾으세요!

퍼즐조각이 있는 세 개의 숫자를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적어
아래의 퍼즐을 완성해주세요.

Quiz 정답:



1월호 이벤트
정답:



● 1월 상품 당첨자

사보편집실에서는 업서나 이메일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미오셀 허리 베개' '미오셀 마이크로케어' '미오셀 영유아 베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마이크로 케어

최미혜 | 코오롱글로텍 KG사업팀

영유아 베개 세트

이우원 | 코오롱제약 OTC팀

허리베개(사보 속 퍼즐 이벤트 당첨자)

송이송이 | 코오롱베니트 인더제조팀

정은규 | (주)코오롱 인사실

- 사보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 '이 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코너에서는 여러분이 근무하는 현장 어느 곳이든 찾아갑니다. 참여를 원하는 팀은 신청해주세요.

- '우리 가족 미션 성공기'에서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미션에 도전하고 싶은 가족은 신청해주세요.

이름/부서/연락처 :

- '해빛 건강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궁금한 것을 보내주세요.

- 주소가 변경된 분은 IKEN 내의 '환경설정 → 사보 주소 변경'에서 수정해주세요.

- 문의 : 02-3677-3108/sabo@kolon.com



코오롱호텔 할인 숙박권



그룹사 임직원 특별 할인 쿠폰

*행사 상품 및 의약품 제외/중복 할인 불가

VI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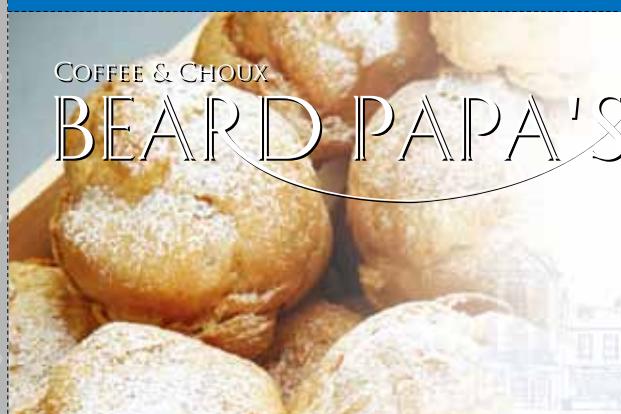
* 코오롱스포렉스를 7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입니다.

Get Started Now!

7Days FREE PASS

TEL. 02) 2638-2800

영등포 타임스퀘어 5층 코오롱스포렉스(<http://ts.sporex.com>)



COFFEE & CHOUX
BEARD PAPA'S



미니슈(10개 세트) 구매 시 아메리카노 증정

※ 커피 미판매점은 딸기주스로 변경

코오롱호텔 할인 숙박권(그룹사 가족 및 지인 이용 가능)

'연중 주중 59,000원/주말 79,000원'
스탠더드 객실 1박 제공

(본 쿠폰의 유효 기간은 2013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예약 문의 : 경주 054-746-9001, www.kolonhotel.co.kr

본 쿠폰을 소지해야만 상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투숙 시 본 쿠폰을 프린트에 제출해주시십시오.

기재 사항

회사명 :

/ 성명 :

/ 연락처 :

www.wstore.co.kr

행사 매장 : 더블유스토어 전 점(매장 정보 www.wstore.co.kr)

행사 기간 : 2013년 02월 28일(목)까지

더블유스토어는 편안한 공간에서 헬스·뷰티·리빙의 다양한 웰빙 상품과 맞춤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드러그스토어입니다.

w-store



* 타임스퀘어점 소개

- 타임스퀘어 몰 내에 위치한 웨스턴 스타일의 피트니스 클럽
- 야외 하늘정원과 연결되며, 지상 5~6층의 탁 트인 전망과 쾌적한 클럽 환경
- 5,600㎡(약 1,700평)의 대규모로 유럽 최고의 테크노 짐과 미국 최고의 라이프 피트니스 헬스 기구 배치

* 시설 소개

- Cardio & Weight Zone :** 60종의 유산소운동 기구, 30여 종의 웨이트 기구 및 다수의 프리웨이트 기구 배치
- G.X Zone :** 핫요가 스튜디오, 스피닝 스튜디오, 60여 개의 무료 P/G
- Golf Zone :** 총 14타석 중 스크린 연습 5타석 설치
- Special Zone :** 슬링 배치
- Relax Zone :** 샤워나, 주스 바, 수면실 등 배치

 **코오롱스포츠**
Fitness Club Times Square

• 성명 _____

• 담당FC _____

• 유효 기간 _____

• 연락처 _____

- 양도 및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 연기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타임스퀘어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1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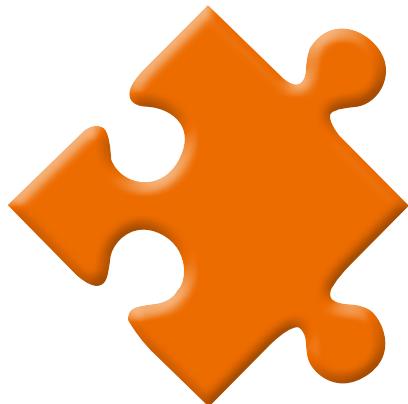
쿠폰번호

www.beardpapas.co.kr

COFFEE & CHOUX
BEARD PAPA'S

|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

- 양재점 : 02-3461-2987
- 과천 코오롱 본관점 : 02-503-2987
- 과천 코오롱 별관점 : 02-502-0542
- 광주진월점 : 070-4187-6588
- 진주점 : 055-747-5800
- 디큐브백화점 지하 2층(신도림)
- 강남NC백화점 지하 1층
-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 현대백화점 천호점 지하 2층
- 현대백화점 신촌점 지하 1층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지하 1층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지하 1층



내가 바로 성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

'나'는 코오롱이라는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나'라는 조각 없이 퍼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각은 바로 '나',
퍼즐의 주인공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